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 연구 : 파리

Innovation World Cities : Paris

반정화 박정윤 라도삼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 연구 : 파리

Innovation World Cities : Paris

2013



Ⅱ 연구진 Ⅱ

연구책임	반 정 화 •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라 도 삼 •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박 정 윤 •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연구원	송 미 경 •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파리도시계획	3
제1절 파리 도시계획 체계의 이해	3
1. 프랑스 도시계획(Plan local d'urbanisme)의 특징	4
2. 파리의 새로운 도시계획(PLU : Plan Local d'Urbanisme)	5
제2절 파리도시계획(PLU)	6
1. 파리도시계획(PLU)의 구성	6
2. 파리도시계획(PLU)의 목표	9
3. 파리도시계획(PLU)의 핵심 내용	9
4. 파리도시계획(PLU)의 수립 절차	15
제3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계획(PADD) : PLU의 청사진	19
1. PADD의 개요	19
2. PADD의 3대 추진 목표	20
제2장 들라노에 시장의 주요 정책	29
제1절 시민환경개선 : 도로정비사업	29
1. 도로 정책의 기본 방향	29
2. 시민을 위한 공간(Espaces Civilisés)	30
3. 녹색마을(quartier vert) 외 지역별 정비사업	34
4. 세느강변 정비사업	35
5. 최근 시내 주요도로 정비 사업	39
제2절 시민일자리 보호 : 보호거리 · 활기찬 거리	42
1. 골목상권과 수공업의 보호	42
2. 파리도시계획(PLU)에 따른 보호조치	43

제3절 낙후지역 개선 : 대규모 도시재생사업(GPRU)	52
1. 사업의 개요	52
2. 파리 대규모 도시재생사업(GPRU) 탄생	52
3. 사업 내용	54
제4절 취약계층 보호 : 사회주택 쿼터제도	61
1. 파리의 사회주택(Logement Social)정책	61
2.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64
제5절 함께 만드는 도시 : 파리 도시행정체계	68
1. 참여 민주주의의 꽃,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	68
2. 수도권 광역 협력의 미래, 파리 메트로폴(Paris Métropole)	73
 제3장 들라노에 시장의 정책적 시사점	83
1.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83
2. 그림의 미학에서의 배움	84
3. 다함께 잘 살아 보세!	86
4. 옛것이 좋은 것이여!	88
 참고문헌	93

표 목 차

〈표 1-1〉 프랑스 도시계획 체계 변화	4
〈표 1-2〉 파리 도시계획의 체계	6
〈표 1-3〉 파리 도시계획 관련 규칙(Reglement)	7
〈표 1-4〉 용도지정계획(Zoning)의 구분	10
〈표 1-5〉 소매상업, 수공업 보호조치 내용	11
〈표 2-1〉 파리 GPRU 1단계 사업 성과	57
〈표 2-2〉 파리 지구평의회 구성원 선출방식 : 파리 벨빌지구 사례	72
〈표 3-1〉 파리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간사업의 의사결정과정	85

그림목차

〈그림 1-1〉 파리도시계획(PLU)의 용도지정 계획	10
〈그림 1-2〉 파리의 고도제한	13
〈그림 1-3〉 녹지구분	14
〈그림 1-4〉 PLU 수립절차	15
〈그림 1-5〉 파리 PLU와 지속가능발전계획(PADD)	19
〈그림 1-6〉 세느강 운하 정비사업	20
〈그림 1-7〉 라데팡스 T3 트램계획	22
〈그림 1-8〉 녹색 마을(Quartier Vert)	22
〈그림 2-1〉 클리쉬와 로슈슈아 대로 정비 전 · 후(9구-18구)	32
〈그림 2-2〉 클리쉬와 벨리브 로고	33
〈그림 2-3〉 파리의 벨리브 대여소	33
〈그림 2-4〉 녹색마을 도로정비 사업 사례(4구 Arsenal 지구)	34
〈그림 2-5〉 녹색마을 사업 내용 사례(4구 Arsenal 지구)	35
〈그림 2-6〉 크리메 지역 구역 지도(파리시 19구)	36
〈그림 2-7〉 크리메 강변도로의 정비 전 · 후 1	36
〈그림 2-8〉 크리메 거리 정비 전 · 후 2	37
〈그림 2-9〉 세느강변 우안 툴리리 정원 구간도로 정비 전 · 후	38
〈그림 2-10〉 외곽환상도로 복개부지 위에 조성되는 Maurice Noguès 산책로 사업	39
〈그림 2-11〉 렌느대로 정비 이후 전체 도로의 변화	40
〈그림 2-12〉 클리쉬 광장의 변화	41
〈그림 2-13〉 파리도시계획(PLU)에 지정된 상업 및 수공업 보호지역	45
〈그림 2-14〉 Vital Quartier 사업 추진 지역	47
〈그림 2-15〉 2000~2006년 도시협약으로 선정된 정비지역	53

〈그림 2-16〉 GPRU 대상지	58
〈그림 2-17〉 Bois-le-Prêtre 건물 리모델링 전·후	59
〈그림 2-18〉 파리도시계획(PLU)에서 제시한 사회주택 부족지역	62
〈그림 2-19〉 2001~2011년 사회주택 공급량	64
〈그림 2-20〉 2001~2011년 사회주택 종류에 따른 공급량	64
〈그림 2-21〉 파리 메트로폴 조합원(2011년 3월 현황)	75
〈그림 2-22〉 그랑파리 교통망 노선도 : Grand Paris Express	78
〈그림 3-1〉 세느강 주변 도로 자투리 공간 활용	89
〈그림 3-2〉 샹젤리제 거리(Avenue des Champs Elysées)	89
〈그림 3-3〉 Viaduc des Arts(12구) : 도심의 오래된 철교를 개조한 아틀리에	90

제1장 파리도시계획

제1절 파리도시계획 체계의 이해

제2절 파리도시계획(PLU)

제3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계획(PADD) :
PLU의 청사진

제1장

파리도시계획

제1절 파리 도시계획 체계의 이해

- 도시계획의 이해를 통한 시정운영 방향 및 트렌드 파악
 - － 도시계획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소비활동·위락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모두 담고 있음
 - － 도시계획은 관련된 활동들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장기·중기·단기적인 공간배치 계획이나, 도시계획은 큰 틀에서 시정운영의 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에 따라 들라노에 시장의 주요 정책 방향 및 핵심 사업의 파악을 위해 파리 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 － 이 장에서는 파리도시계획(PLU)의 주요 내용들을 분석하고, 다음 장에서는 주요 정책사례들을 제시함
 - － 파리도시계획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방대한 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기본적인 구성 및 목표, 핵심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의 내용만을 다루고자 함

1. 프랑스 도시계획(Plan local d'urbanisme)의 특징

- 도시계획관련 법안 개정
 - － 2000년 12월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la Solidarité et Renouvellement Urbains, SRU법)로 도시계획 관련 법안이 개정
 - － 이 법안은 계획 간의 상충관계 발생을 방지하고 종합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함께 제시
- 프랑스 도시계획의 체계는 초광역계획과 광역계획으로 구분
 - － 초광역계획(주 단위)
 - 중앙정부계획(Directive Territoriale D'aménagement, DTA)
 - 주계획(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D'Île-de-France, SDRIF)¹⁾
 - － 광역계획(도시연합 차원)

〈표 1-1〉 프랑스 도시계획 체계 변화

범위	SRU법 개정 이후 도시계획 체계	기존 도시계획 체계
초광역 (주단위)	• DTA(Directive territoriale d'aménagement, 중앙정부 계획)* • SDRIF(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d'Île-de-France, 수도권 주계획)	
광역 (도시연합차원)	• SCOT(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 광역지역발전계획) • PLH(Programme local de l'habitat, 지역주택 계획) • PDU(Plan de déplacement urbain, 도시교통 계획)	• SD(Schéma Directeur, 광역계획)
기초 (개별 도시 or 연합차원)	• PLU (Plan local d'urbanisme, 도시지역계획)	• POS(Plan d'occupation des sols, 토지점용계획) - ZAC(zone d'aménagement concerté, 협의정비계획)

* 2010년 DTADD로 명칭을 개정함

출처 : Mairie de Paris, 2006, Orientation du PLU : Sommaire Dossier Presse

1) 파리 수도권인 일드 프랑스(Ile de France)는 이 계획 범주에 해당

- 기존 광역계획을 광역지역발전계획으로 변경²⁾
- 종합적인 광역계획 외에 지역주택계획(PLD : Plan Local D'habitat), 도시교통계획(PDU : Plan de Déplacement Urbain), 상업발전계획(PDC : Plan de Développement Commercial) 별도 수립
- 도시계획(기초단위)
 - 통합적인 도시계획(PLU : Plan Local D'urbanisme) 수립
 - 기존의 토지점용계획(POS : Plan D'occupation des Sols)은 토지이용 규제 중심의 국한된 성격
 - 2000년에 새로 만들어진 도시계획(PLU)은 폭넓은 지자체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계획

2. 파리의 새로운 도시계획(PLU : Plan Local d'Urbanisme)

- 파리의 도시계획 체계
 - 수도권 주계획(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d'Île-de-France, SDRIF) : 프랑스에서 유일한 주단위의 수도권계획
 - 파리 도시계획(PLU) : 토지사용제한규정과 중·단기 전략 계획³⁾의 성격을 모두 가짐
 - 파리의 지역주택계획(PLH : Programme local de l'habitat) : PLU의 계획 내에서 상충하지 않게 수립
- 파리 도시계획(PLU)의 성격
 - PLU는 일종의 “도시의 종합계획”일 뿐 아니라 도시정비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규제(Regulation) 사항도 명시된 계획임

2) 광역지역발전계획(Schéma Directeur, SCOT) : 공공에게만 구속력을 갖는 포괄적 광역발전계획

3) 광역지역발전계획(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 SCOT)과 같이 10~15년에 걸쳐 한 도시의 발전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

- － 도시 내 용도지역(Zone) 결정, 도시기반시설 및 단위계획구역(Secteur) 지정, 개발 사업계획 포괄 등 한국의 도시 관리 계획과 유사한 형태
- 파리 도시계획(PLU)의 특징
 - － 파리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 지역자치단체로 기초자치체인 도시(Ville)와 광역자치체인 도(Département)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 － 도시 관리계획, 경관계획, 개발 사업계획 등 종합적 계획 방안 포괄
 - － 종전 토지점용계획(POS)과 상관없던 독립적 계획 협의정비지구(Zone d'aménagement concerté, ZAC)⁴⁾도 법안 개정 이후 PLU로 수용

〈표 1-2〉 파리 도시계획의 체계

지역	SRU 이후 도시계획체계	기존의 계획체계
Île-de-France	- 수도권 주 계획(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d'Île-de-France, SDRIF) - 도시교통계획(Plan de déplacement urbain Paris) Île-de-France	
PARIS 도 (Département) 시 (Ville)	- 도시지역계획(Plan local d'urbanisme, PLU) de Paris - 지역주택계획(Programme local de l'habitat, PLH) de Paris	- 광역계획(Schéma directeur, SD) - 토지점용계획(Plan d'occupation des sols, POS) - 협의정비계획(Zone d'aménagement concerté, ZAC)

출처 : Mairie de Paris, 2006, Orientation du PLU : Sommaire Dossier Presse

제2절 파리도시계획(PLU)

1. 파리도시계획(PLU)의 구성

- 파리도시계획은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음 : 1) 도시현황보고서,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PADD), 3) 도시계획관련 규칙, 4) 부록

4) 협의정비지구는 1967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지구단위 개발계획이자 공공-민간 공동투자와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강력한 도시개발제도로 프랑스 현대 도시개발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

○ 도시현황 보고서(Rapport de presentation)

-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 경제, 환경, 주택, 사회 부문의 전반적 현황을 제공함. 이를 토대로 인구 및 경제에 대한 진단과 예측 수록
- 도시현황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함
- 규율적 성격을 지니지는 않으나, 개발지역의 설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근거로 중요성을 지님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PADD : Projet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 주택 경제, 여가, 교통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정비계획 및 방향을 명시하고, 특정 지역의 공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PADD는 기존 POS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문서로 이를 통해 도시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PADD의 도입은 기존 POS와의 계획적 측면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도시계획 관련 규칙(Reglement)

- PADD를 근거로 수립되는 14개 항목의 규칙

〈표 1-3〉 파리 도시계획 관련 규칙(Reglement)

항목	규칙	항목	규칙
제1조	토지점용 및 이용금지 용도	제8조	같은 소유주의 다수 건축물들의 대한 배치
제2조	특정조건하의 토지점용 및 이용	제9조	건폐율
제3조	공공 및 사유도로에 대한 각종 부지접근 조건	제10조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4조	상하수도, 전기 기반시설 접근조건	제11조	건축물의 외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
제5조	최소건축면적	제12조	주차장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사항
제6조	도로 및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물 배치	제13조	대지 내 공공 공간, 놀이터, 식재 공간 조성
제7조	대지경계선에 대한 건축물 배치	제14조	용적률

출처 : Mairie de Paris, 2006, Orientation du PLU : Sommaire Dossier Presse

- PADD는 도시계획법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전 계획에서는 규정부분이 핵심이었으나 PLU에서는 PADD가 상위 기준이 됨

○ 부록

- 중앙정부의 공공규칙, 관련 도시계획법, 사진, 도면 등
- 부록의 공공규칙은 용도지정, 하수처리, 공항소음, 교통수단의 소음, 납중독, 옥외 광고, 도시선매권 해당지역 리스트, 공사현장 주변의 리스크 대응, 방음 등의 문제와 관련된 국가법조항을 담고 있음

[참고] 도시빈민지역정책(Politique de la ville)과 '대형 도시재생계획(Grand Projet de Renouvellement Urbain : GPRU)'

- Politique de la ville : 중앙정부와 지역 자치단체들의 협약, 취약지역의 생활, 사회환경의 개선이 목표
- Contrat de ville : 도시협약을 체결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사회적 연대를 위한 도시 협약(Contrats urbains de cohésion sociale)'으로 명칭 전환
- Grand Projet de Renouvellement Urbain : 현재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낙후지역 개선사업으로 2001년 10월 1일 시작
 - 11개지역 진행 중, PLU 수립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현 PLU에 포함되어 관리 중



출처 : Mairie de Paris, 2009, Le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pour Paris 2007~2009

2. 파리도시계획(PLU)의 목표

- 파리도시계획은 3개의 주요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① 건축, 경관,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
 - － 녹지보호, 경관정비, 공공공간을 정비하거나 조성
 - － 대중교통망을 확충(대기오염감소)하고 친환경 도시의 미래를 건설
 - ② 낙후된 시설 등의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기여
 - － 도시 내 공공소유의 비축토지 등을 활용하여 사무공간, R&D 공간, 기업 인큐베이터 등을 조성
 - ③ 도시의 불평등, 소외 문제 적극 해결
 - － 도시빈민지역정책(Politique de la ville)과 대형도시재생계획(GPRU : Grand Projet de Renouvellement Urbain)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적극 건설
 - － 가장 취약한 서민지역의 환경개선과 소외지역의 사회적 통합이 목적

3. 파리도시계획(PLU)의 핵심 내용

1) 용도지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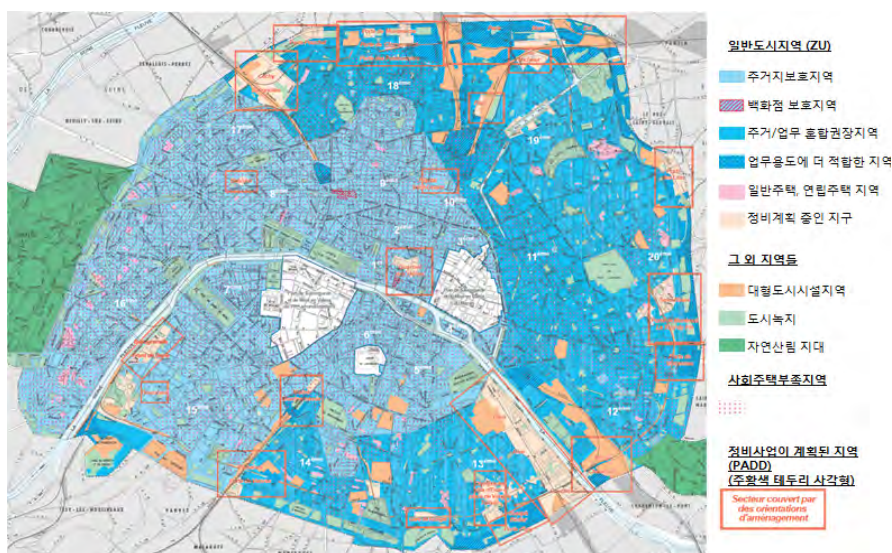
- 용도지정 계획의 목표
 - － 파리도시계획(PLU)은 한 지역에서 다양한 용도(기능)의 도시공간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 － 일반도시지역의 도시계획규정들은 복합적 도시기능의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용도지정계획(Zoning)의 구분
 - － 파리도시계획의 용도는 자연산림, 녹지도시, 대형도시시설, 일반도시지역과 적용 예외 지역인 보존구역으로 구분됨
 - － 도시의 전체적 기능 안에서 융화되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다양한 시립공공시설
과 프랑스 철도청, 국립철도관리국, 파리항구, 공립종합병원 등이 위치

〈표 1-4〉 용도지정계획(Zoning)의 구분

구분	면적(ha)	비중(%)	해당 지역 및 공간
Zone N (자연산림지역)	1,793	17.0	강력한 자연보호지역으로 파리의 불로뉴, 뱅센느 숲
Zone UV (도시녹지)	771	7.3	도시조경과 휴식을 위한 공간들로 도시정원, 공원, 묘지, 운동장 등의 건축물이 적은 공간 등
Zone UGSU (대형도시시설지역)	485	4.6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이 위치한 지역 등
Zone UG (일반도시지역)	6,931	65.8	파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UG지역은 협의정비지구(ZAC)를 포함한 각종 개발지역, 일반 주거지역(이전 POS의 주거지역인 zone UL에 해당) 등
Secteurs Sauvegardiés (보존구역)	324	3.1	PLU 적용 예외지역으로 7구와 마레지구가 해당

출처 : Mairie de Paris, 2006, Orientation du PLU : Sommaire Dossier Presse



출처 : Mairie de Paris, 2013, Règlement, Le règlement fixe, en cohérence avec le P.A.D., les règles générales et les servitudes d'utilisation des sols, Règlement par zone

〈그림 1-1〉 파리도시계획(PLU)의 용도지정 계획

2) 소상공인 및 수공업자 보호정책

○ 소매업 및 수공업 등 파리 골목상권의 해체현상

- － 파리는 여러 지역에서 골목상권이 다른 형태의 상업 활동에 의해 잠식되는 현상이 발생(주로 의류, 정보통신업체열의 도매상들)
- － 극단적인 경우 단일 업종의 상업이 한 지역을 독점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까지 악화시키기도 함
- － 특히 수공업은 파리의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임
- － 소상공과 수공업은 매우 취약한 경제활동이므로 일련의 보호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새로운 PLU에 따라 소매상업, 수공업 보호거리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행정소송으로 2009년 승소 이후 시행됨)

○ 소상공, 수공업 보호정책 내용

- － PLU는 30개 “수공업과 경공업구역”의 보호를 명시함
- － 해당 구역은 단일 혹은 다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 내 위치한 수공업 및 경공업공간들은 보호되거나 더 나은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함

〈표 1-5〉 소매상업, 수공업 보호조치 내용

구분	내용
소매상업과 수공업의 일반적 보호조치	253.7km의 해당거리에 직접 접하는 건물1층에 위치한 상업, 수공업 공간의 용도변경 불가
소매상업과 수공업의 강화된 보호조치	19km의 해당거리의 각 건물 1층은 모두 상업과 수공업 용도로만 사용가능(접근도로, 로비, 공동시설 등 공간 제외)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 이들 건물의 리모델링 시에도 용도를 유지하여야 함
수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조치	21.5km의 해당거리에 수공업 공간들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함. 상업공간은 다른 종류의 상업이나 수공업 공간으로 변경가능하나 다른 용도로는 불가능
“Vital quartier” 사업 실행	2003년 말부터 SEMAEST(파리 동부지역 혼합경제정비회사) ⁵⁾ 의 주도 아래 특별히 문제가 많은 일부지역(6개)의 상업보호 정책 파리시의 지원으로 비어 있거나 팔기 위해 내놓은 상가를 매입하여 소형 동네서점 등 경쟁력이 약한 업종 대상의 지역 상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

출처 : Mairie de Paris (2006), Orientation du PLU : Sommaire Dossier Presse

3) 사회임대주택 증대

○ 사회임대주택 증대를 위한 방안

- PLU의 ‘일반도시지역’ 규정 2조에는 파리시의 45%에 해당하는 면적과 관련하여 ‘사회주택쿼터 기준(25%)’에 못 미치는 지역들을 겨냥한 규척이 있음
- 건축허가가 필요한 모든 건축 프로젝트에서 주거 면적이 1,000m²를 넘을 경우 적어도 25% 이상의 사회주택을 포함해야 함
- 전체 89개 구역을 지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17개의 예정지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공공시설을 설치

4) 도시경관,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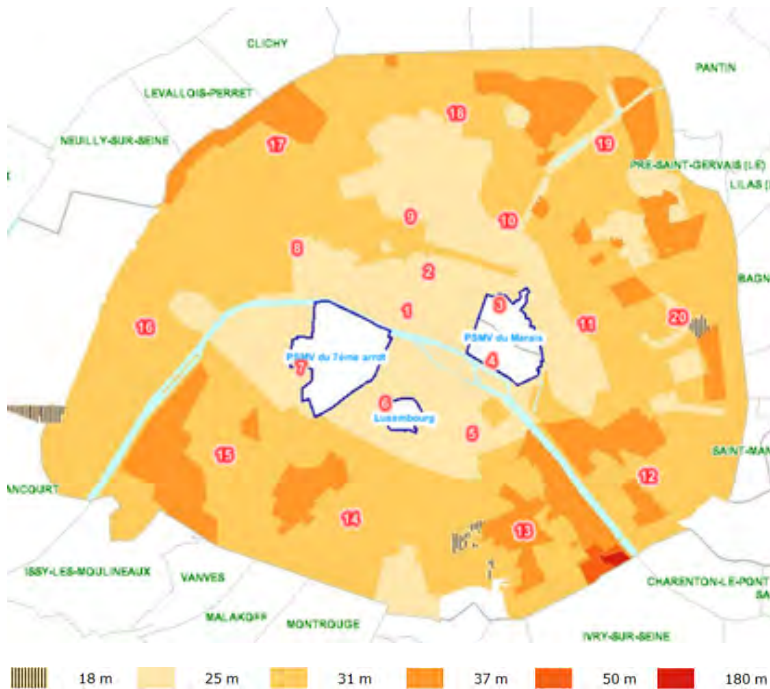
○ 도시경관, 건축을 위한 의무 규정

- 좁은 가로에 들어선 건축물의 정렬방식은 최대한 기존 건축선(alignment)을 준수하되, 좁은 가로에서 신축건물에 해당하던 6m 건축후퇴선 규정 삭제
- 종전의 고도제한은 유지하고 가로변 건축물 규격(Gabarit)은 제한함. 가로의 넓이가 건물규격에 비례하는 정통적 형태를 고수하되 일부 제외 지역은 PLU에 상세하게 명시

○ 주차공간의 확대 및 설치규정의 제한

- 주거지에만 거주민들을 위해 지하층에 주차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주차장 추가 건설은 금지
- 주거지는 파리 시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전 계획보다 주차공간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 완화⁶⁾

5) Societe d'Economie Mixte d'Amenagement de l'Est de Paris는 파리 동부지역개발을 위해 파리가 설립한 민관혼합형 회사로 파리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의 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함. 특히 생활여건이 좋지 않고 도매상이나 유해상가가 몰려 있는 파리 동부의 지역밀착형 가게 정착에 기여



출처 : Mairie de Paris (2013), Textes du Plan local d'urbanisme

〈그림 1-2〉 파리의 고도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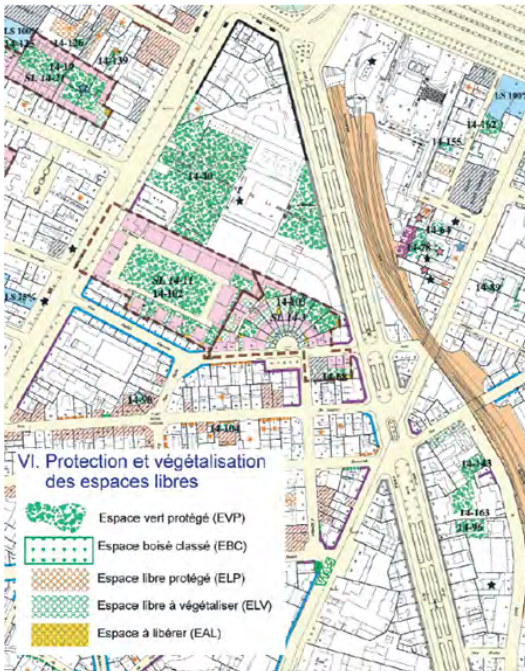
5) 녹지, 공지

○ 엄격해진 녹지, 공지 공간조성 규정

- － 도시의 공지의 경우 각종 정비계획에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공터 면적에 대한 PLU 규정이 더욱 엄격해짐
- － 특히 폭이 15m 이상 20m 이하인 대지는 절반 이상의 면적을 공터로 남겨야 하는 등 공터면적 확보 규정 강화

- 6) PLU는 파리 시민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주거면적 100㎡(전용면적기준)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이전의 POS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거면적 71㎡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당 최소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음. 전체면적 1,000㎡ 이하의 주택건설계획에는 주차공간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데 이는 소규모의 주거프로그램들이 주차공간 때문에 지나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규정된 최소공터 확보면적 중 최소한 40%는 자연 상태의 나대지(지하층에 건설 불가)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지역은 법원의 허가 아래 20~30%만 자연 토지나 그에 상응하는 상태를 유지
 - 단, 이러한 지역은 더욱 넓은 면적을 석판 바닥이나 테라스, 건물의 벽면, 지붕 등의 다른 형태를 이용하여 식물을 길러야 한다고 규정
 - 지하 공간 건축도 제한 등이 강화됨
- 녹지 공간의 구분 및 구성



구 분

- EVP 5 (보호녹지, espace vert protégé)
- EBC (보호산림, espace boisé classé)
- ELP (보호공지, espace libre protégé)
- ELV (녹화해야 할 보호공지, espace libre à végétaliser)
- EAL (공지화해야 할 공간, espace à libérer)

출처 : Mairie de Paris, 2013, Textes du Plan local d'urbanis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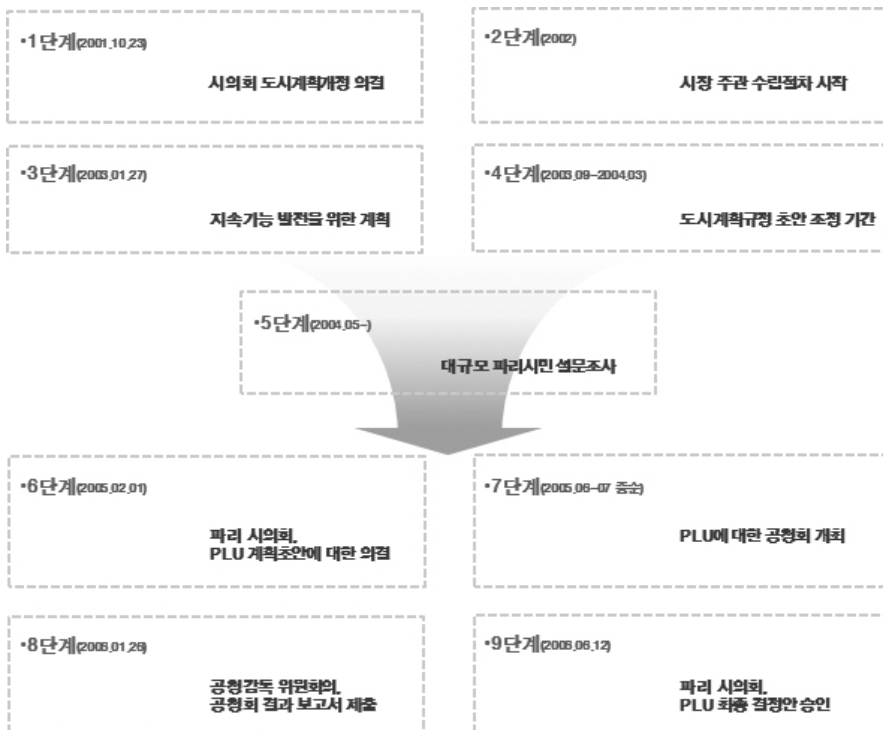
〈그림 1-3〉 녹지구분

- 다양한 사유녹지대는 이전의 POS에서 ‘내부의 보호 녹지공간(Espaces Verts Intérieurs Protégés, EVIP)’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고 있었으나

PLU계획은 ‘보호 녹지공간(Espaces Verts Protégés, EVP)’으로 명칭 변경 후 지정 지역을 확대하고 ‘녹화된 혹은 녹화예정인 유휴지(Espace Libre végétalisé ou à végétaliser, ELV)’ 제도를 추가

- PLU 계획에 의하면 238.5ha의 면적에 1,428개의 보호 녹지공간이 지정되어 있음
- 녹지공간은 자연산림지역과 도시녹지대 공간을 포함함

4. 파리도시계획(PLU)의 수립 절차



〈그림 1-4〉 PLU 수립절차

1) 파리도시계획(PLU)의 수립 과정

(1) 1단계 : 시의회의 도시계획개정 의결(2001년 10월 23일)

- 새로운 파리도시계획(PLU) 수립으로 도시계획 관련 협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유례없이 큰 규모로 이루어짐
- 협의과정은 현황분석, 도시정비계획 결정, 규정의 개정 등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됨
- 2002~2004년 매년 단계마다 파리 모든 구청에서 파리 도시계획국 책임자인 장 피에르 카페(J. P. Caffet)의 주도 아래 최소 1회 이상의 전시회와 회의가 열림
- 계획의 핵심 방향에 대한 인접 도시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3년 12월 인근 도시의 책임자들에게 보고되기도 함
- 계획초기단계부터 파리의 주도 아래 500명 이상의 시민단체,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8개의 분야별 연구팀이 조직됨

(2) 2단계 : 시장의 주관 아래 수립 절차 시작

- 현황분석 단계
 - － 의견수렴을 위해 전시회, 의견수렴 상설창구 설치
 - － 구청 단위의 1차 협의 토론회
 - －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 단위로 브리핑 진행(2002년 진행상황)
- ‘근린민주주의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 la democratie de proximite, 지방자치단체법전 L.2143-1조)’에 근거하여 파리 시정은 2002년 7월 121개의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를 설립
- 지구평의회의 설립으로 시민의 직접적인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모든 주민에게 열린 토론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됨

(3) 3단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내용 토의(2003년 1월27일)

- 파리시 구청별로 지속가능한 발전(Projet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PADD)을 위한 계획을 전시하고 시민의견수렴 상설창구 설치(2003년 2월7일~4월5일)
- 구청별로 제2차 협의 토론회 개최(2003년 상반기)
-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는 일반 시민들의 제안 분석
 - － 121개의 파리 지구평의회는 시민들에 의해 제안된 1만4천 개의 의견들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
 - － 이러한 제안에 대한 파리 시청의 응답(PLU제정 관련과 그 외의 다른 시정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역시 각 구청에 보고
- 파리 시청에서 파리도시계획(PLU)에 대한 총회 개최(2003년 6월)

(4) 4단계 : 도시계획규정의 초안 조정

- 분야별로 자문회의와 전략위원회를 10차례에 걸쳐 개최
- 총 조정 기간 : 2003년 9월~2004년 3월

(5) 5단계 : 대규모 파리 시민 설문조사(2004년 5월부터 진행)

- 각 구청에 도시계획규정 전시(5월17일~6월 25일)
- 각 구청에서 제3차 협의회의 개최(3월~6월)
 - － 2003년 협의회에서 도출된 14만개의 파리 각 지역 제안에 대한 파리시의 의견 종합분석

(6) 6단계 : 파리 시의회, 파리도시계획(PLU) 초안 의결(2005년 2월1일)

- 41개 관련 공공단체(중앙정부, 주정부, 인근 도시대표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기간(2005년 3~5월)

(7) 7단계 : 파리도시계획(PLU) 공청회 개최(2005년 6월~7월 중순)

(8) 8단계 : 공청회 결과보고서 제출(2006년 1월26일)

- 파리도시계획(PLU)의 최종결정을 위한 조정기간(2006년 2~3월)
- 각 구청에서 브리핑(2006년 4월~5월)
- 각 구의회 회의(2006년 5월말~6월초)

(9) 9단계 : 파리 시의회의 파리도시계획(PLU) 최종 결정안 승인(2006년 6월12일)

2) 파리 도시지역계획(PLU)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공청회 감독위원회
 - 감독위원회 위원은 2005년 3월 30일 파리행정법원장이 임명(9+3인)
 - 파리 20개의 구청에서 2005년 5월30일부터 7월13일까지 공청회 진행
- 감독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 파리 시청에 4개 분야로 구성된 2천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제출(2006.2.6)
 - 보고서는 공청회 진행상황, 감독위원회 관찰 내용과 의견, 그리고 결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 감독위원회 보고서는 파리도시계획(PLU) 초안에 따른 각종 의견, 제안, 유보사항 등을 정리하여 최종승인에 반영되도록 함
- 공청회 제안 중 중요내용 사례
 - 일부 지역(건축예술에 기여할)의 특수한 건물에 대한 고층건설 허가 제안
 - 현재까지 일반적 도시계획에 적용되지 않았던 협의정비지구(ZAC)들이 PLU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지역에 대한 고려 요망
 - ‘시민을 위한 도로 공간(Space civilisé)’제도와 ‘정비계획(obilien)’을 통해 공공공간 관리개선을 위한 노력 진행 중
 - 파리 PC(Petite Centuire)도로의 철도기능을 강조
 - 현재 파리 대부분 지역을 순환하는 트램 전차노선을 통해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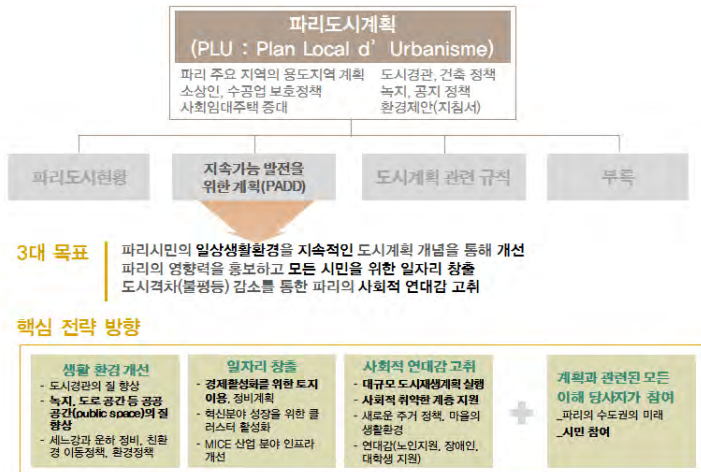
제3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계획(PADD) : PLU의 청사진

1. PADD의 개요

- 환경제안(PADD : Le cahier des recommandations environnementales)은 PLU의 핵심 정비사업
- PADD 계획은 친환경건축기준에 적합한 건축 사업을 장려
- 법적 구속력을 가진 파리도시계획(PLU) 본문은 아니지만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서이자 PLU에 첨부하는 건설 관련 주체를 위한 지침서
- PADD의 내용 및 범위
 - － 파리의 자연환경, 토양오염, 건물 내/ 대기 중 공기의 질, 에너지와 기후 변화문제, 규제, 선택
 - － 소음문제, 쓰레기처리, 청결도, 수자원, 그 외 다른 오염, 폐해, 위기
 - － 건설자재 문제, 현장에 따른 폐해, 건설공정의 환경영향평가 등

PLU의 수립절차

- 1단계(2000.10.23)
시회의 도시계획개정 의결
- 2단계(2002)
시장 주관 수립절차 시작
- 3단계(2003.01.27)
지속가능 발전에 위한 계획
- 4단계(2003.09-2004.03)
도시계획규정 초안 초정 기간
- 5단계(2004.05-)
대규모 파리시민 설문조사
- 6단계(2005.02.01)
파리 시민회, PLU 계획초안에 대한 의결
- 7단계(2005.06-07.05)
PLU에 대한 공청회 개최
- 8단계(2006.01.26)
공청회록 검토위원, 공청회 결과 보고서 제출
- 9단계(2006.03.14)
파리 시민회, PLU 최종 결정안 승인



출처 : Mairie de Paris, 2013, Projet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P.A.D.D.) 재구성

〈그림 1-5〉 파리 PLU와 지속가능발전계획(PADD)

2. PADD의 3대 추진 목표

- 도시계획개념의 지속 적용을 통해 파리 시민의 일상생활환경 개선
- 파리의 영향력을 홍보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추진
- 도시격차(불평등)를 감소시킴으로써 파리의 사회적 연대감 고취

1) PADD의 핵심 전략 방향

(1) 파리 시민의 일상생활환경 개선

① 도시건축 경관의 질 향상

- 역사예술유적뿐 아니라 일반적 도시경관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시민단체, 지구평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



출처 : Mairie de Paris, 2013, Projet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P.A.D.D.)

〈그림 1-6〉 세느강 운하 정비사업

② 녹지, 도로공간 등 public space의 질 향상

- 녹지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 통행 제한
- ‘Espace Civilisé’, ‘Jardins Partagés’, ‘Mobilien’, ‘트램전차’ 등의 제도/사업으로 친환경 목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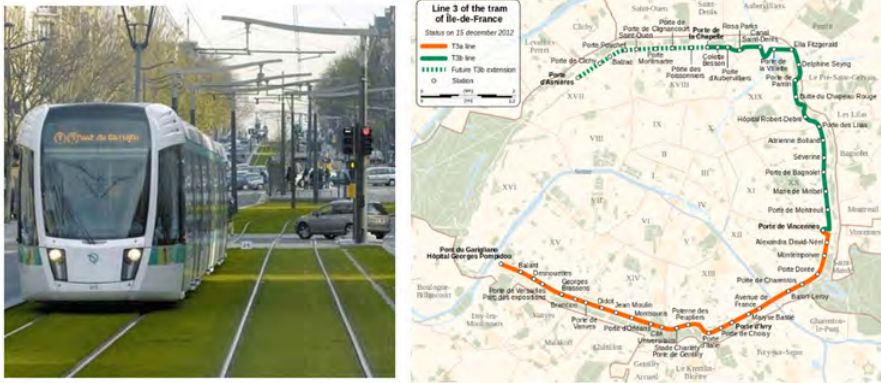
③ 세느강과 운하 정비

- 일드프랑스 주민의 일상이동과 매년 강변을 따라 파리를 관광하는 6백만 이상의 관광객들의 운송하는 2가지 용도의 여객수송수단 제공 정책 발전
- 세느강변에 스포츠시설, 축제 등의 이벤트 시설, 산책길 등 생활시설들을 설치하고 산책로의 연결성 강화
 - － 운하 정비, 루이 블랑 유역(10구에 위치)의 낙후된 상업공간을 지역주민 동아리활동, 문화, 경제활동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10구 주민들을 위한)하기로 함
 - － 19구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공공-민간시설을 이용한 빌레트(La Villette)유역 개발(낙후된 옛 창고시설과 인공저수지 주변 중심)
 - － 인접 이웃도시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파리시 영지인 생드니와 우르크 운하(Canaux de Saint-Denis et de L'Ourcq)유역 등 북동부 재활성화
 - － 파리 시내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라비에브르(La Bièvre)강 개발
 - － 이켈레르만 공원, 르네 르갈 스퀘어, 부퐁 거리 박물관 별관을 지나는 비에브르 지류 재정비
 - － 이오스테를리츠 인근 세느강과의 합류지점 재생 등

④ 친환경 이동정책

- 지상 대중교통수단과 친환경이동수단 이용을 장려하고 상습 정체구간 제거
- 교통수단, 공공공간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 강화
- 일드프랑스 교통계획에 부합하는 교통정책
- 급행간선버스 모빌리엥, 트램전차노선, 지하철 노선 연장, 고속전철 RER 노선망 확충, 환승방식 개선, 세느강을 이용한 대중교통시설 설치

○ 시내 주차장소를 제한하여 자동차 이용 감소 유도



〈그림 1-7〉 라데팡스 T3 트램계획

○ 녹색마을(Quartier Vert), Espace Civilisé 등 보행자 배려 공간사업 시행



〈그림 1-8〉 녹색 마을(Quartier Vert)

⑤ 환경정책

- 식수용 납 수도관 교체, 빗물관리 개선 등
- 재생에너지(태양열 집전판 등) 및 패시브 하우스 장려, 녹화벽, 지붕 설치
- 시내 정비지구 내 각 건물 내부에 소형 폐기물처리장, 재활용품 수거장소를 설치(지구 내 기존 시설의 상황에 따라)
- 시내에 재활용 폐기물 집하장 설치

2) 파리의 영향력 홍보 및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정비계획

- 대규모 정비 사업지구(파리 리브고슈, 파리 노르에스트 등) 내에 새로운 경제거점 창조 목표
- 파리 북·동·남부는 주거와 업무가 균등하게 혼합된 용도혼합 권장지역의 비중이 높아 복합용도개발이 장려됨. 단 실업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 업무 용도를 권장
- 수공업, 상업기능 보호 추진
- 대인서비스(특히 고령자 서비스 등), 기업서비스 등의 업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

② 혁신분야 성장을 위한 클러스터 활성화

- R&D공간, 산학협력공간 조성 적극 장려
- 특히 고등교육기관이 집결된 파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계획 마련

③ 문화관광

- 문화·창작공간, 시민을 위한 예술향수, 체육시설 제공, 관광객을 위한 안내, 숙박시설 강화, 대중교통 이용 독려를 위해 관광버스 운행 제한
- 파리 시민의 집을 관광객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이용 조치 강화
 - － 이를 통해 파리 일부 지역은 시민의 삶과 관광객의 만족도 동시에 개선

- 도로, 문화, 관광단지로의 접근성 개선
 - － 거동이 불편한 관광객들의 대중교통이용환경 개선 추진
 - － 도로에 보행자용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회적 관광을 발전
- 철도역사 등 관광객이 가장 많은 지역에 관광안내소를 추가 설치하여 안내서비스를 강화
- 관광객들의 동선을 잘 고려한 교통정책 실행
 - － 관광버스 이용을 줄이고 세느강을 이용한 교통수단(수상셔틀 등) 장려
 - － 중요 관광유적 인근에는 주차를 금지시키거나 제한
 - － 동시에 이용객들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한 정류장은 유지
- 대규모 이벤트, 컨벤션 시설 개선

3) 사회적 연대감 고취

- ① ‘도시협약(Contrat de Ville)’에 따라 대형 도시재생계획(Grand Projet de Renouvellement Urbain, GPRU) 실행
- 어린이 양육-청소년 학업지원시설 설치, 치안강화, 문화공간 설치, 일자리 창출, 소외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공공공간 개선, 접근성 개선 등
- ② 가장 취약한 계층 지원
 - 800~1,000개의 비상숙소, 노숙자와 빈민을 위한 장기체류 숙소, 주간보호소(식사, 위생시설, 휴식 제공) 설치
 - 이민근로자들의 기숙사를 재조정하고, 소외·취약가구들을 위해 600~800개의 주택 추가 공급(연 3,500가구의 사회주택 보급계획의 일환)
 - 16~25세 사이의 빈곤청년 지원 네트워크 강화
 - 보건소 등 전문화된 서민시설 확충
- ③ 새로운 주거정책
 - 파리 지역주거계획(PLH : Programme Local de l’Habitat) 수립

- 불량주거지를 구입 후 사회주택으로 전환 재생
- 연 4,500가구 이상의 사회주택 공급계획
- 낙후된 사회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수리지원
- 일반 주택소유주들과 계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유도

④ 마을의 생활환경

- 근린지역 상가 활성화(보호거리 지정, Vital Quartier 정책 등)
- 문화, 체육, 복지시설의 운영시간을 파리 시민의 생활에 적합하도록 조정
- 어린이 보육시설, 시민문화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

⑤ 연대감

- 노인지원 확대 : 보조금 강화, 교통서비스 및 주거시설 수리지원, 요양원 증대 및 현대화
- 장애인 : 대중교통망 접근성 개선, 특수시설 신설, 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
- 대학생 : 2001~2012년 사이 학생용 임대주택 5,000채 추가 공급

4) 파트너들의 참여 독려

① 파리와 수도권의 미래

- 2005년 일드프랑스 발전계획(SDRIF)의 3대 원칙(자연환경과 도시환경 사이의 균형, 도시구조의 다핵적 조직, 대중교통성능의 개선)과 상충되어서는 안되며 일관성을 가져야 함
- 교외에 위치한 다수의 대규모 계획들(라데팡스 트램전차 T2노선의 연장, 파리 남동부와 북부 경계선을 따라 트램전차노선 개설, 외곽환상도로 복개, 일부 도시입문지역 정비, 파리 북동부, 바티뇰정비계획, 세느강 유역(상·하류)과 운하정비계획)에 대한 고려 등

② 시민참여

- 파리도시계획(PLU)은 대규모(기간, 참여단체의 수 등)의 협의과정을 거쳐

수립

- 정치인, 시민(121개의 지구평의회와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다양한 기관들(공·사립) 참여
- 약 1만 4천 개의 제안 중 3분의 1이 ‘도시유적과 유산’에 관련된 제안임. 그 외 도로정비 건설과 소상공인(小商人) 지원 등 논의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구마다 도시계획분야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계획과 건설사업을 검토
- 지역위원회는 파리도시계획(PLU)에 명시된 보호지역(유적, 자연환경 등)들은 필지별로 상세히 검토하여 자문기관 역할을 수행

제2장 들라노에 시장의 주요 정책

제1절 시민환경 개선 : 도로정비사업

제2절 시민일자리 보호 : 보호거리·활기찬거리

제3절 낙후지역 개선 : 대규모 도시재생사업(GPRU)

제4절 취약계층 보호 : 사회주택 쿼터제도

제5절 함께 만드는 도시 : 파리 도시행정체계

제2장

들라노에 시장의 주요 정책

제1절 시민환경개선 : 도로정비사업

1. 도로 정책의 기본 방향

1)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동성 보장

- 자동차 운행에 따른 환경오염으로부터 파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정비
- 들라노에 시장 취임 이후, 교통수단을 다양화하고 자동차와 시민이 공공 공간을 형평성 있게 나누어 쓰기 위한 정책과 사업 구상
- 친환경 교통수단(자전거 등)과 보행자 통행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내 많은 가로의 형태가 변경되고 자동차 통행량이 감소 중

2) 주요 추진 사업

- ‘시민을 위한 공간’ 사업
 - 공공공간의 조화로운 사용과 안전성, 쾌적감 증대 및 파리의 역사적 산책로 복원을 위하여 시대의 도로와 광장을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2001~2007년)

- ‘녹색마을’ 사업
 - 2001년 시작된 ‘조용한 마을’사업의 전신으로 파리시 36개 지역을 선정하여 구역 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공공간을 제공(2001년~현재)
- 세느강변 정비
 - 크리메 거리 등 세느강변에 보행 환경이 좋지 못한 거리를 대상으로 차량통행 억제, 경관 개선, 다리시설 정비, 자전거 및 보행로 확대 등 거리 개선(2009~2011년)
- 최근 시내 주요대로 정비
 - 파리시 외곽환상도로, 렌느대로, 클리쉬광장 등

2. 시민을 위한 공간(Espaces Civilisés)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시내 중요 교통축 정비를 위해 2001년 수립
 - 당시 시내 도로의 94%는 자동차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로인 반면, 실제 파리 지상의 공공공간 이동자의 68%는 보행자로 나타남
 - 이는 승용차 운행(20%)과 다른 방식(버스, 택시, 자전거 등)의 이동(12%)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
- 공공공간의 조화로운 사용과 안전성, 쾌적함을 높이기 위한 사업
 - 보행자, 장애인,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버스, 택시, 승용차, 영업용 차량, 오토바이 등이 골고루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
 - 동시에 파리의 역사적 산책로들을 복원하고 환경 및 경관 개선 도모

2) 5대 목표 및 주요 추진 사업

(1) 5대 목표

- 승용차의 전유물이던 시내도로와 광장에 보행로, 버스전용도로, 자전거 도로 등의 비율 확대
- 공공공간 녹화사업 확대
- 다양한 종류의 환경공해(대기오염, 소음, 토양 등) 감소
- 지역 생활여건 개선
- 도시경관과 가로변 건축물의 상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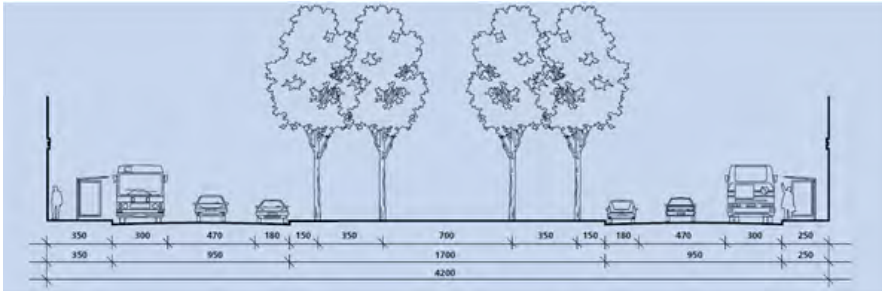
(2) 세부 추진 사업

- 공공공간 내 자연 상태의 토양을 최대한 유지하고 가로수 보존
- 버스전용도로 확대
 - － 일부 버스전용도로의 중심부는 포장을 제거하고 자연 상태의 토양유지
- 시내에 대형 관광버스의 주차를 최대한 제한
- ‘Fermiers Généraux’ 대로들을 따라 가로수 길 형태로 1m50cm 폭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시내에 상업,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배달차량 전용주차공간 확충
- 노점 상인들의 활동을 감독·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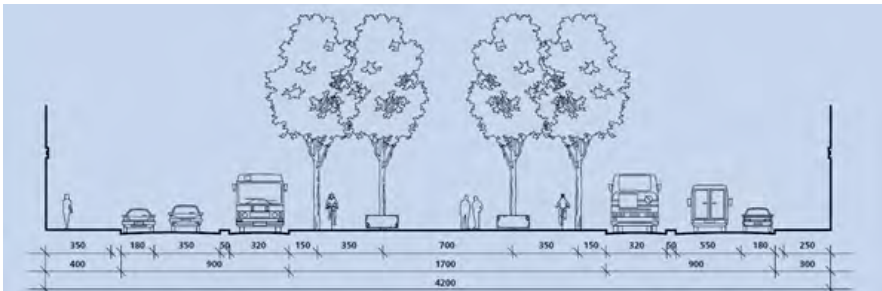
3) 사업 진행 경과

- 2001년 4월~2002년 2월 : 사업진행을 위해 관련지역 시민 토론회
- 2002년 2월 말 : 파리 시청이 정비계획 결정
 - － 9구-18구 클리쉬와 로슈슈아 대로, 13구 프랑스 대로, 19구 장조레스 대로, 10구 마젠타 대로, 18구 바르베스 대로, 6구 렌느 대로 등이 선정
- 2002년 3월~2003년 12월 : 사업실행을 위한 연구, 검토, 토론회 진행
- 2002년 11월~2005년 말

- 1.6km 길이의 도로(총 정비면적 67,500m²) 정비
 - 4,500m² 면적의 녹화정원 탄생
 - 2.5km 길이의 버스전용도로와 2.3km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총 예산 1천3백 4십만 유로 투입
- 2007년 공사 완료



○ 정비 전



○ 정비 후

출처 : http://www.apu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esp_civil.pdf

〈그림 2-1〉 클리쉬와 로슈슈아 대로 정비 전·후(9구-18구)

[참고] 파리지 자전거 교통 혁명 벨리브(Vélib) 서비스

- 벨리브(Vélib) 정의 : 벨리브(Vélib)는 볼어로 자전거(Vélo)와 자유(Liberté)의 합성어이며 자전거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의미
- 사업목적 : 무인 자전거 대여서비스를 통해 파리의 교통난을 타개하고 환경오염과 에너지 문제 해결(2020년까지 자동차 수송 부담률 40% 감소)
- 추진주체 : 파리시와 JC Decaux
 - 옥외광고 대행사인 JC Decaux사가 자전거 대여장소와 자전거를 설치하고 매년 550만 달러를 파리시에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1천 628개에 달하는 옥외광고 간판에 대한 사용권한을 10년 동안 소유하는 전속계약
- 추진내용
 - 2007년 7월부터 도입
 - 최초 750개 대여소와 1만대의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으로 150만명이 이용
 - 약 300m마다 대여소가 있으며, 빌린 곳이 아닌 목적지 근처 대여소에 반납
 - 이용료는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150유로 보증금에 30분 이하 무료, 1일 1유로, 7일 5유로, 1년 29유로(약 5만원)
- 단점 : 자전거 도난과 손상으로 인한 비용
 - 2009년 7월 대여소와 자전거수는 2배 증가했지만, 1만6천대가 교체되고 8천대가 분실됨. JC Decaux사는 분실자전거 전담반과 10개의 수리 센터 운영(1일1천5백대 자전거수리)
- 파급효과
 - 2007~2009년 사이 1일 평균 이용객 7~8만명, 파리 시민 210만명 중 20만명이 회원이며, 자전거 교통수송 부담률은 1%에서 5%로 증가
 - 파리지의 자전거 무인대여 서비스를 모델로 다른 유럽 6개국 2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 중
 - 국제사회에 들라노에 시장의 명성을 높인 대표 서비스 중 하나



〈그림 2-2〉 클리쉬와 벨리브 로고



〈그림 2-3〉 파리의 벨리브 대여소

출처 : 파리벨리브 홈페이지(<http://en.velib.paris.fr/>)

3. 녹색마을(quartier vert) 외 지역별 정비사업

1) 시민을 위한 쾌적한 공간 마련

- 녹색마을 프로그램은 파리 시내 3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을 정비하는 사업
 - － 2001년 시작된 ‘조용한 마을’사업의 전신
 - － 선정된 구역에서는 자동차 통행속도를 30km로 제한
 - －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정비

2)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 : 산책로 조성, 횡단보도 정비 등
- ②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 주차 공간 설치
- ③ 불법주차, 과속 등 자동차 통행에 의해 생기는 불편을 엄격히 단속
- ④ 소방차량 통행로 개선
- ⑤ 공공 공간 녹화사업



출처 : Mairie de Paris, 2006, Le Quartier Vert ARSENAL, 1ère section territoriale de voirie de la Ville de Paris

〈그림 2-4〉 녹색마을 도로정비 사업 사례(4구 Arsenal 지구)



Mairie de Paris, 2006, Le Quartier Vert ARSENAL, 1ère section territoriale de voirie de la Ville de Paris

〈그림 2-5〉 녹색마을 사업 내용 사례(4구 Arsenal 지구)

4. 세느강변 정비사업

- 세느강변 크리메(Crimée) 거리와 다리가 위치한 지역(파리 동북부)을 정비
 - － 파리 시청, 프랑스 건물관리청, 파리 문화사업국의 협력사업으로 2009년~2011년 3년간 진행

1) 크리메 거리 구간

- 크리메 거리는 파리에서 가장 긴 거리 중 하나로 차량통행이 많아 보행여건과 경관이 좋지 않았던 지역이었음



출처 : eDream International network, Hôtel Crimée Paris, www.edreams.fr

〈그림 2-6〉 크리메 지역 구역 지도(파리시 19구)



Mairie de Paris, 2011, "Réaménagement du quai de la Seine, du pont et de la rue du Crimée"

〈그림 2-7〉 크리메 강변도로의 정비 전 · 후 1

- 크림메 거리 서부에 위치한 세느강변 개선사업
 - － 세느강변 양방향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인도 폭 확장
 - － 28대 이륜차량, 68대 자전거 주차공간 설치
 - － 가로시설 개선, 장애인 차량과 배달차량 주차장소 추가 확보
 - － 가로 조명시설 개선(친환경 전구로 교체)
- 크림메 거리 개선 사업
 - － 30km 속도제한 구역을 설치하고, 보도 폭 확장
 - － 이륜차 주차공간(자전거 14대, 오토바이 10대 수용) 신설
 - －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영업용 배달차량 정차장소 확대
 - － 크림메 다리 정비
 - 철골구조, 동작기계부분 등을 완전히 정비
 - 다리의 인도개선, 자전거 통행로 설치, 조명시설 확충으로 미관 개선



Mairie de Paris, 2011, "Réaménagement du quai de la Seine, du pont et de la rue du Crimée"

〈그림 2-8〉 크림메 거리 정비 전·후 2

2) 세느강 우안 정비사업

- 세느강변은 원래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유적지도 많지만 배기가스나 자동차 소음의 피해도 많음
- 2012년 세느강 우안 다수 지역 정비
 - － 대규모 정비사업은 아니지만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들이 조화를 이루며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구조 개선
 - － 뉴욕 대로, 킬리 정원, 시청 스퀘어, 시청 산책로 등



Mairie de Paris, 2012, "Les Berges", Mairie de Paris

〈그림 2-9〉 세느강변 우안 킬리 정원 구간도로 정비 전 · 후

[참고] 파리 우안 세느 강의 도심 휴양지, 파리 플라주

- 세느강변을 해변으로 바꾸어 여름 내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무료로 개방하는 축제
- 세느강변 3km를 인공 백사장, 비치 파라솔, 간이 수영장, 이동식 도서관, 매장 등으로 꾸미며 모래 2천5백톤과 야자수 등 수십억원이 소요
- 2002년부터 매년 추진되었으며 매년 약 400만 명이 찾는 명소
-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인 '벨리브', 1년에 2번 밤새도록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백야축제 '라 뉘 블랑슈'와 함께 들라노에 시장의 대표 업적 중 하나



출처 : Mairie de Paris, 2012, Paris Plages 2012

5. 최근 시내 주요도로 정비사업

1) 포트 드 방브(14구) 외곽 환상도로 복개사업

- 파리는 시 경계를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가 순환도로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외곽의 도로변 지역이 소음, 매연으로 인해 피해가 많음
 - － 파리 남부 방브, 말라코프시 구간은 주거지가 매우 가깝게 인접해 피해가 특히 큰 편이었음
 - － 물리적 피해(소음, 대기오염)뿐 아니라 도로에 의한 단절은 파리와 인접 도시들 사이의 소통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 파리는 이 지역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복개하여 확보된 상부의 부지(1,000m²)를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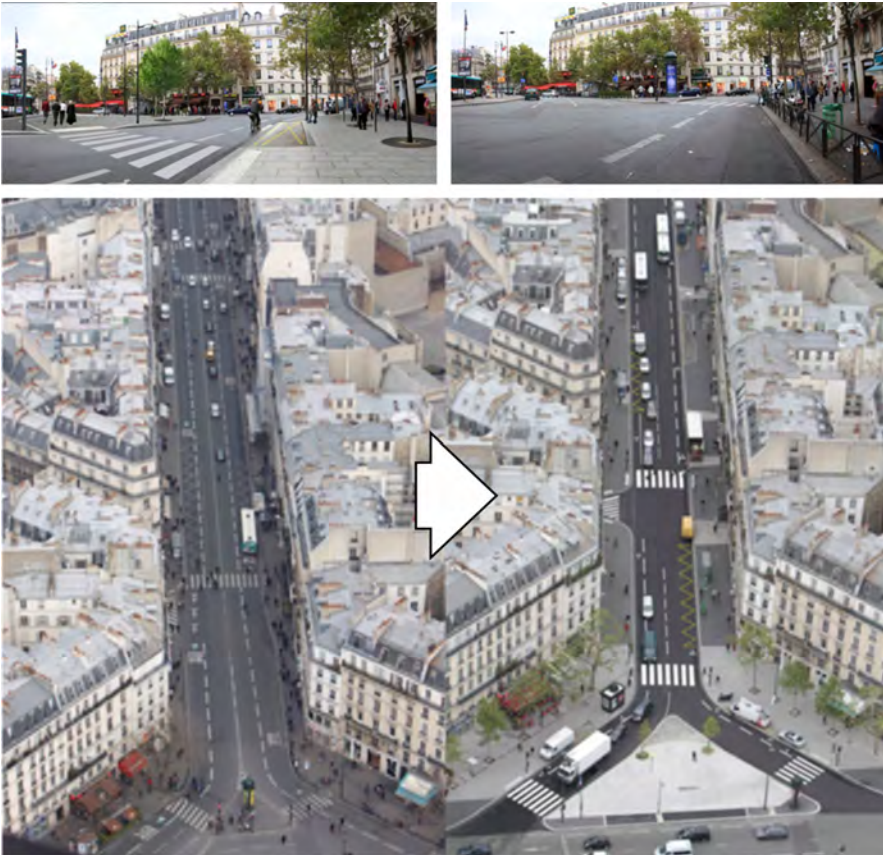
출처 : Mairie de Paris, 2012, “Aménagement d’un mail piétonnier rue Maurice Noguès (14e arr.) GPRU – Porte de Vanves”, Direction de la voirie et des déplacements de la Ville de Paris

〈그림 2-10〉 외곽환상도로 복개부지 위에 조성되는 Maurice Noguès 산책로 사업

- 소규모 정원, 산책로, 자전거 통행로, 새로운 가로시설(가로등, 벤치 등), 가로수 등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소통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조성
- 2000년 시작되어 2008년 완성되었으며 GPRU 사업의 일부이기도 함

2) 렌느대로(Rue de Rennes) 정비사업

- 몽파르나스 대로에서 라스파이 대로까지 파리 남부 가장 변화한 상업거리



Mairie de Paris, 2012, Rue de Rennes : un espace public embelli et mieux partagé

〈그림 2-11〉 렌느대로 정비 이후 전체 도로의 변화

- 2011~2012년 ‘시민을 위한 공간’ 사업을 통해 일차적으로 정비
- 이 정비 사업을 통해 인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자전거 통행로 신설
 - 특히 대로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배달차량 정차공간을 확충하는 데 주안
- 주요 정비사항
 - 넓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환경개선



Mairie de Paris, 2012, Rue de Rennes : un espace public embelli et mieux partagé

〈그림 2-12〉 클리쉬 광장의 변화

- 인도를 4.5m에서 6m로 확장하고 공공공간의 필요 없는 시설과 기존 버스전용도로를 제거하며 양방향에 자전거도로 설치(1km 길이)
- 매력적인 상업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로경관 개선 : 새로운 벤치 설치, 가로수 조성, 친환경 조명시설로 교체, 횡단보도 추가 설치, 광장(1940.6.18.광장)의 중앙부 녹화 및 이륜차 주차장소 확충

3) 클리쉬 광장(Place de Clichy)

- 17구의 중요 광장 중 하나인 클리쉬 광장의 정비공사
 - 클리쉬 광장은 광장이라 불리지만 자동차가 독점하고 있었음
 - 그래서 인근 피갈 지역이 매우 활성화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도환경도 쾌적하지 않고 매연도 심한 편이었음
 - 인도를 확장하고 광장에 연결된 대로는 가로수 길로 조성했으며 횡단보도, 친환경 가로등, 벤치 등 도로 공공시설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
 - 2010년 3월에 완료(11개월 소요)

제2절 시민일자리 보호 : 보호거리 · 활기찬 거리

1. 골목상권과 수공업의 보호

1)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골목상권의 위기

- 온라인판매 증가, 파리 외곽지역의 대형마트 난립, 임대비용 급등 등에 따른 영세 상인의 부담 증가
- 경쟁력이 높은 고급스러운 부티크, 체인 레스토랑 등만 늘어가고 시민을 위한 골목상권, 특히 식료품상, 서점, 전통 카페나 식당 등은 감소
 - 파리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는 8만 개가 넘고 야외 장터에도 3,000개 이상의 판매소가 성업⁷⁾

- －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늘어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일부 지역에서는 골목상권이 다른 형태의 상업 활동(주로 의류, 정보통신
업계열의 도매상들)에 의해 잠식되는 현상 발생
 - － 극단적인 경우 단일 업종의 상업이 한 지역을 독점하여 해당 지역 주민
의 생활환경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라 상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자체가 전환
 - － 주로 고급주거지로 전환되며, 이 경우 소상공인은 갈 곳이 없음
- 이에 따라 시내에서 소상공인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
의 보호조치 필요성 제기

2) 파리 전통 수공업의 위기

- 파리는 패션과 디자인의 수도로 불리며 수백 년 동안 고급의류,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분야의 수공업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음
 - － 현재도 5,000개 이상의 수공업자들의 공방이 활동 중
 - － 바스티유 오페라 지역의 가구, 장식품 장인들의 명성은 지금도 유지
 - － 하지만 시민들의 소비패턴 변화(대량생산된 기성품 선호 등)와 부동산
비용 상승으로 전반적인 수공업자들의 활동이 위협받고 있음
- 파리 도시계획 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

2. 파리도시계획(PLU)에 따른 보호조치

1) 상업과 수공업 보호를 위한 노력

-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이었던 ‘토지점용계획(Plan d’occupation des sols)’은
상가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없었음

7) 2006년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 집계

- ‘토지점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300m² 이상의 상업공간에 대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허가 조건이 있었음
 - 일자리 창출, 주변 상업에 미치는 영향, 경쟁과열 방지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허가가 가능했음
 - 특히 파리 외곽에 위치한 대형마트가 시내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인근도시들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
- 2003년 PLU 수립을 위해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파리 시내에는 400여 개 상업거리(Commercial street)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적으로 유명한 샹젤리제, 오스망 대로 등 포함
- 2006년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인 Plan local d’urbanisme(PLU) 수립 시 보호거리 지정
 - 파리 시내에 상당한 길이의 가로 중 도로변에 위치한 1층 상가, 수공업 공방을 보호토록 3가지 종류의 ‘보호거리’ 지정
 - 2006년 수립된 보호거리 규정은 행정소송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다가 2009년 4월 소송에 승소하여 효력을 갖게 됨

2) 파리도시계획(PLU)에 지정된 상업 및 수공업 보호조치

(1) 상업, 수공업 보호거리 : 3가지 종류, 총 290km 지정

- 일반적인 상업, 수공업 보호거리(253.7km)
 - 거리에 직접 접하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상업, 수공업 공간은 다른 용도(상업, 수공업이 아닌)로 전환 불가
 - 단 공공서비스나 공익을 위한 용도로는 변경 가능
- 강화된 상업, 수공업 보호거리(총 19km)
 - 각 건물의 1층은 모두 상업과 수공업 용도로만 사용 가능(접근통로, 로비, 공동시설 등의 공간 제외)
 - 일부 특수한 경우(호텔, 공공서비스 시설 설치 등)를 제외하고 이들 건

물의 리모델링, 재건축 시에도 그 용도를 유지

– 단 공공서비스나 공익을 위한 용도로는 변경 가능

○ 특수한 수공업 보호거리(총 21.5km)

– 수공업 공간들은 더 이상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

– 항상 수공업을 유지해야 하며, 상업공간은 다른 종류의 상업이나 수공업으로는 전환이 가능하나 다른 용도로는 불가

(2) 그 외 파리도시계획(PLU)에 명시된 상업, 수공업 보호조치

○ 백화점 지역 보존지구(Sites de protection des grands magasins)

– 파리의 유명 백화점 건물들은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매우 높음



출처 : APUR, "Special PLU, Note de 4 pages : Assurer la diversité du commerce"

〈그림 2-13〉 파리도시계획(PLU)에 지정된 상업 및 수공업 보호지역

- 이들 건물은 유리 등을 주요재료로 사용한 도시 내 대표적인 근대건축물로 19세기 건축양식을 대표
- PLU는 파리 최초의 백화점인 사마리텐느 백화점(2005년 폐점) 부지와 건물을 보존하여 상업공간, 사회임대주택, 업무공간 등의 복합용도로 재탄생시키기로 결정
- 그 외의 백화점(프랭탕, 라파이엣트) 지구도 상업전용지역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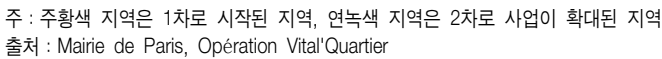
3) SEMAEST의 활기찬 거리(Vital Quartier)사업

(1) 탄생배경 및 의미

- 도시계획 차원의 보호거리 지정은 포괄적인 보호대책으로 파리지 전체의 상업, 수공업의 양적인 보호가 가능하지만 진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보호에는 부족함
 - 또한 도시계획의 규정차원에서 지나치게 용도변경을 제한할 경우, 상가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이 지나치게 심해져 한계가 있음
- 파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로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가부동산 사업을 구상
 - 특히 파리 시내 일부 지역은 단일 업종(의류 도매상이나 컴퓨터 부속품 등)이 한 지역을 독점하거나 소규모 상가들이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고사하여 근린상가의 절대 수가 부족해지는 지역이 있음
- 파리 시청은 파리 소유 부동산개발 도시정비지방공사인 ‘SEMAEST’를 통해 2004년부터 상업보호 사업을 시작하도록 결정⁸⁾
 - 단일 업종 독점지역은 상업 활동을 다양화하고, 소규모 상가 고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 SEMAEST는 파리의 지원으로 비어 있거나 팔기 위해 내놓은 상가를 구

8) SEMAEST(Société d'économie mixte d'aménagement de l'Est parisien) : 파리 동부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민·관합동출자회사(1983년 설립)로 파리가 회사주식의 60%를 보유

○ 2006년부터 이 사업은 ‘활기찬 동네(Vital quartier)’라고 명명됨



〈그림 2-14〉 Vital Quartier 사업 추진 지역

(2) 사업 내용

- 파리 상업의 다양화-보존 사업인 활기찬 거리(Vital quartier)는 2004년 파리 시청이 SEMAEST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상가부동산 임대사업
 - 이 사업은 초창기에 골목상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시내 6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으나 2008년에는 11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
- SEMAEST는 파리시로부터 도시선매권을 위임받음⁹⁾

9) 도시선매권(le droit de préemption urbain) : 사업이 실행되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나온 상가 부동산을 SEMAEST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 － 즉 사업이 실행되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나온 상가부동산을 우선적으로 SEMAEST가 매입
- 매입한 부동산은 식료품상, 서점, 정육점, 세탁소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근린업종들이나 수공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
 - － 단순한 임대뿐 아니라 영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수리비용과 경영에 필요한 자문까지 지원
 - －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권리금을 받지 않으며, 월세 3개월 치에 해당하는 보증금만 받음
 - － 또한 초기 3개월은 월세를 감면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SEMAEST는 사업지역(현재 파리 11개 지역) 내 사무실을 개설
 - － 영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보, 자문 제공 등 상가지원 사업 추진
 - － 동시에 사업 지역의 전반적인 상업 발전을 위해, 포괄적 차원의 지역 상업 발전전략 탐색
 - － 홍보, 업종개발, 시민편의를 위한 근린상가 개발 등 다양한 연구 진행

(3) 진행 성과

- 파리는 SEMAEST에 8천7백만 유로의 사업자금을 투자(2004년)
 - － 사업 완료 시에는 가능하면 임대상인들에게 상가를 인수하도록 하여 사업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함
- 2006년 본격적으로 임대사업 추진
 - － SEMAEST는 6개 지역에서 9,000m²의 상업공간을 매입하여 130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
 - － 2011년 기준 11개 지역에서 344개의 상가들이 영업을 시작
- 많은 성과를 낸 Vital'Quartier 사업 더욱 활성화
 - － 파리는 저축신탁금고와 협력을 통해 2011년 말 80개의 상업공간을 매입하고 운영권을 SEMAEST에 이양

4) 기타 상업 및 수공업 보호사업 : 2001년 들라노에 시장 취임 이후

(1) 재래시장, 노점상 보호

- 파리 시민들이 애용하는 재래시장 지원책 강화
 - － 2004년 새로운 재래시장 2곳 개설, 투명한 재래시장 운영을 위한 규칙 (유기농 식품 보급, 최고의 접근성, 시설안전 등의 분야) 강화
 - － 2005년 1구 레알 지역에 새로운 식료품시장 신설, 3개의 시장(11, 13, 15구) 신설 계획 검토, 시장 내 유기농 식품판매 지원
 - － 2007~2008년 식료품 전문 재래시장 개설
 - 2007년부터 시내 각지의 리모델링, 시설현대화 사업 실행
 - － 2009년 청결, 안전을 위해 파리 시내 81개 식료품 시장(재래시장) 운영 규칙 강화, 재래시장 배달서비스 시작, 유기농 식품 판매 확대
 - － 2010년 8월 18구의 올리브 시장 재개장
 - 중앙시장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세심한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고, 2년 만에 리모델링 공사 완료
 - 다양한 시장축제 지원(‘시장풍경사진 대회’ 등)으로 시내 재래시장 활성화 유도
- 세느강변의 중고책 노점 보호
 - － 세느강변의 중고책 노점들은 1752년부터 시작된 전통을 지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깊은 활동
 - － 이들의 활동보호, 홍보 및 철저한 관리감독 등 높은 수준의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2011년 314개의 간이상점 지원과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 시작
- 추진 결과
 - － 2013년 현재 파리 시내 식료품 위주의 69개 재래시장(옥외) 중 3개(바티볼, 브랑쿠지, 라스파이) 시장은 유기농 특화시장
 - － 13개의 실내 시장과 꽃시장, 새시장, 의류시장, 벼룩시장, 예술가들을

- 위한 시장(젊은 예술인들의 작품 거래, 2개소) 등이 운영 중
- 일반적으로 시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3시까지 운영되나, 점점 시민들의 생활리듬에 맞추어 7개 시장은 주 1~2회 오후시간에 운영하기로 함

(2) 수공업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 장인, 수공업자 지원
 - 장인지원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 축제 개최(전통음식, 장식품 등)
 - 2004년에는 11, 12, 18, 19구에 소상공인과 장인 지원센터 개설
- 수공업자가 파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가구, 의상, 장식품 등)
 - 2010년 ‘파리 아틀리에’ 개장
 - 2006년에는 전통적으로 수공업으로 유명한 12구에 ‘파리 아틀리에’라는 가구, 의상, 디자인 분야 수공업자 지원사업 시작
 - 장인과 디자이너를 위한 창작전시공간, 레지던스, 정보센터 등 종합적인 수공업-디자인 공간 조성
 - Viaduc des Arts(12구) 사업 : 오래된 철교를 개조하여 아틀리에로 제공

(3) 기타관련 지원제도

- 2004년부터 300m² 이상의 상업공간 허가조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
 - 일자리 창출, 주변 상업에 미치는 영향, 경쟁과열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파리 외곽에 위치한 대형 마트가 시내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인근도시들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
- 들라노에 시장은 취임 이후 식료품상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장려금 마련(5개 업소에 8천유로 지원)
 - 2003~2005년 사이 시내 식료품가게가 13% 증가

- 2006년부터 상인들에게 각종 세금 할인혜택 부여
 - － 자신의 영업장소 인근 거리에 주차할 경우, 대폭 할인된 요금제가 적용됨(거주지 인근 주차와 같은 요금, 0.5유로/일)
 - － 시의 대규모 정비 사업들로 인해 손실을 입은 카페, 가게에는 보도 이용세 면제¹⁰⁾
- 2010년부터 파리 북부 서민밀집지역(Porte Montmartre 지역)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성화 사업 시작
 - － 상공회의소, 상인협회, 금융기관 등이 함께 협력하여 30개 이상의 상점 리모델링 실행
 - － 로고, 간판 등도 통일하여 경관미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상점의 입점효과도 발생함. 다른 지역도 이러한 사업을 벤치마킹
- 2011년 독립 슈퍼마켓의 위기 대처 방안 마련
 - － 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에 따라 독립 슈퍼마켓이 위기에 처함
 - － 이에 따라 파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슈퍼마켓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요청
- 2011년 3월 테라스 카페와 거리 진열대 등에 대한 규칙개정안 의결¹¹⁾
 - － 보도에 최소 폭 1.6m의 통행로 보장 의무화와 테라스에서 옥외가스난방기 사용금지 등이 주요 내용
- 2012년부터 골목상권 활동지원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개설
 - － 파리 시청 홈페이지에 상업 활동 허가나 거리테라스 사용허가신청 온라인 서비스 개설

10) 보도이용세 : 옥외 테라스나 상품진열 등을 위해 보도를 사용할 때 내는 세금

11) 2010년부터 공청회를 통해 많은 시민이 참여

제3절 낙후지역 개선 : 대규모 도시재생사업(GPRU)

1. 사업의 개요

1) 제도적 배경 : 도시빈민지역 정책과 도시협약

- 도시빈민지역 정책(Politiques de la ville)
 - － ‘도시빈민지역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들이 협약을 맺어 낙후되고 범죄 등 문제가 많은 지역의 생활 및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 －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파리에서 진행 중인 GPRU 사업 역시 ‘도시빈민지역 정책’의 일환
- 도시협약(Contrat de ville)
 - － 도시빈민지역 정책이 구체적인 지역개선사업으로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재정과 사업운영을 담당할 주체들이 필요함
 -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 기업들이 협약(Contrat)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재정 부담 방식을 결정함

2. 파리 대규모 도시재생사업(GPRU) 탄생

- 들라노에 시장은 취임 이후 파리 일부 지역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빈곤, 도시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착수
 - － 특별히 문제가 많은 파리 외곽 경계선 지역의 11개 구역을 선정해 ‘2000~2006년 도시협약(Contrat de ville)’을 체결
- 파리의 16개 지역(해당인구 35만 명)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위의 ‘도시협약’에 해당하는 집중개선지구로 선정
 - － 16개 지역 중 특히 대대적인 개선사업이 필요한 11개 지역(해당인구 20만 명)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명칭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Grand projet de renouvellement urbain, GPRU)임

- 이후 2006년 도시협약(Contrat de ville)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 체결
 - － 2007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협약은 2013년 현재까지 유효하며 명칭이 바뀌어 ‘사회적 단결을 위한 도시협약(Contrats urbains de cohésion sociale)’으로 불리고 있음
- 이러한 16개 지역 사업 중에서도 GPRU(11개 지역)는 규모가 가장 크고 개선 효과도 두드러짐



출처 : Mairie de Paris, 2009, Le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pour Paris 2007~2009

〈그림 2-15〉 2000~2006년 도시협약으로 선정된 정비지역

3. 사업 내용

(1) GPRU의 목표

- 가장 낙후된 시내 11개 지역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
 - － GPRU 대상지 내에도 불량주택(그 중에서도 1960~1970년대 지어진 저급한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음
- 위험한 공공공간들의 경관, 시설을 정비하여 시내 중심부와의 격차 줄임
- 물리적 차원의 정비뿐 아니라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공공시설의 질, 치안, 교육환경 향상 등 삶의 질을 입체적으로 개선¹²⁾

(2) GPRU의 7대 분야별 목표

-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 － 11개 GPRU 지구별로 지역 경제사회발전센터(일자리 포럼, 사회적기업 지원, 지역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개설
 - － 상가, 업무공간을 적극 확충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
- 지역 내 사회적 관계 발전 및 시민의 권리 강화
 - － 복지 확대를 통해 한 부모 가정, 프랑스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등에 대한 배려 강화
 - － 마을개선 사업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독려
 - － 지역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 활동 적극 지원
- 도시재정비
 - － 불량주택 개선,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주거공간, 생활공간 개선

12) 종전까지 프랑스의 불량낙후지역 개선사업은 주로 불도저 식의 철거-재건축 사업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충격, 도시고급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그러나 GPRU에서는 이들을 무조건 철거하기보다 되도록 원래의 마을형태를 보존하고 조금씩 개선해나가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

- － 트램전차 등 대중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친환경 건축 촉진
- － 파리 외곽환상도로 복개사업 추진
 - 파리 경계 지역에 위치한 GPRU 대상지는 이 사업으로 도로소음, 대기오염이 감소하고 복개지 상부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재탄생
- 교육, 청소년, 스포츠 분야 발전
 - － 다양한 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등 설치
- 보건여건 개선
 - － 보건소, 응급시설 등의 여건 개선
 - － 마을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청결유지 계획 등 실행
- 범죄예방 정책
 - － 범죄피해자 지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시행
 - － 범죄다발지역 경비인력 지원
- 문화사업
 - － 지역의 역사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신설
 - － 이민자가 집중한 지역들이므로 다문화 프로그램 확충
 - － 문화교육 증대, 청년 예술가 지원, 도서관, 자료센터, 극장 등 확충

(3) 사업주체

- 파리 시청
 - － GPRU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재정적으로도 가장 큰 부분을 감당
 - － 모든 정비사업을 승인하며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
 - － 각개 사업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시
-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구청(12, 13, 14, 17, 18, 19, 20구)
 - － 파리 시청과 협력해 좀 더 현장 가까이에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조정
 - －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협의하는 과정을 주관

○ 파트너

- 중앙정부 소속 ‘파리 경시청(Préfecture de Paris)’, ‘국립 도시재개발 연구소(Agence nat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가 5개 지구 재정지원
- ‘예금공탁금고(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기회평등과 사회 단결을 위한 국립연구소(Agence nationale pour la cohésion sociale et l'égalité des chances)’ 등도 재정과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여

○ 기술 분야 책임

- 파리 시청의 도시계획국은 시설, 공공공간, 주거지 등 전반적인 도시정비계획 수립
- 도시빈민정책(Politique de la Ville) 책임부서는 사회, 경제, 교육, 직업 창출사업 등을 책임
- 그 외 외부 건축가, 경관전문가, 사회학자 등이 참여

○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참여

- 지역발전을 위해 의견 제안
-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을 GPRU 공공주체들을 대신하여 실행(교육, 복지, 문화, 보건 등)
- 도시협약에 따라 이들 시민단체에 재정지원

(4) 사업진행 및 성과

○ GPRU의 1단계

- 최초의 ‘2000~2006년 도시협약(Contrat de ville)’에 따른 진행

○ GPRU의 2단계

- 2007년 새로운 도시협약인 ‘사회적 단결을 위한 도시협약(Contrats urbains de cohésion sociale)’ 체결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GPRU에 대한 파리의 총 투자금액은 2억8천5백만 유로에 달함

[참고] 1단계 사업 성과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 1억 6천만 유로 투입(중앙정부, 파리시, 일드프랑스 주)
- 우선적으로 Porte de Vanves, Porte de Clignancourt, Cité Michelet 등 3개 지구의 주거여건 개선사업 착수

〈표 2-1〉 파리 GPRU 1단계 사업 성과

지역명		주요성과
①	레 올랭피아드	• 부동산 소유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실행 • 70년대 건설된 주택단지입구 접근성 개선공사 시작(시에서 공사비 80% 지원) • 공용공간 정비사업, 지역 내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착수 • 중앙광장공사(시에서 공사비 90% 지원)를 위한 연구 실행
②	베디에-포트 디브리	• 2006년부터 협의개발지구(ZAC) 사업 실행, 현재 임대주택건물 건설공사 중 • 유스호스텔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 일부 공공서비스 시설 입주를 위한 추가 검토 시작 • 청소년 지원센터 1개소 신설
③	플레장스-포르트드 방브	• 시민을 위한 복지, 어린이 교육시설 계획 • 지역을 지나는 외곽환상도로 복개공사(계약계획을 통해 중앙정부 지원 예상) • 업무단지, 교육시설 공사 진행, 적십자 사무실 입주, 도로정비 완료
④	포트 푸셰	• 시민공개토론을 통해 협의개발지구 사업 계획 • 고층 주거건물 건물 철거예정,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설치계획 • 공공공간(도로, 파크웨이 등) 정비, 브레쥬 산책로 녹화-정비사업 착공 • 2007년 초 고층 주거건물 리모델링 착공
⑤	포트 몽마르트-포트 클리낭쿠르와 포트 프와소니에 지역	• 고층 주거건물 철거, 공공시설 설치와 정비계획 • 업무, 주택사업도 예정 • 공청회 예정, 시민토론과 함께 2개의 정비사업 검토 중
⑥	파리 노르-에스트 지역	• 클로드 베르나르 협의개발지구계획 결정(SEMAVIP개발공사 담당) • 260개 주택, 학교, 유아원, 민간요양원, 레저센터, 사무공간 등 계획 • 지역 내 대중교통계획(고속전철, 노선전차)을 위해 이웃 도시들과 협의 지속
⑦	시테 미슐레	• 구(舊) 프랑스 가스공사 건물부지에 대한 계획 검토 중
⑧	생 블레즈	• 카르되르-비트뤼브 블록 정비사업에 앞서 블록 내 대형 주거건물의 철거 혹은 리모델링 결정 검토 • 생블레즈 공원 재정비(2006년 완료예정)
⑨	포트 드 몽트뢰이-라 투르 뒤 팡	• 책임 건축가 선정을 위한 공모전
⑩	포트 드 뱅센느	• 지역 조정건축가(architecte coordinateur) 선정작업 진행 중 • 뱅센느 대로 정비를 위한 책임자도 선정작업 진행 중
⑪	포트 데 릴라	• 외곽환상도로 복개사업과 연계하여 파리 동부 포트 드 릴라 지역에 주거, 도서관, 문화, 체육, 상업시설, 녹지, 고령자 복지시설, 학생주택 등 계획 • 경관정비사업 공모전 • 2006년 외곽환상도로 복개 완료 • 양로원 준공, 문화, 체육시설, 공원, 광장, 친환경 업무공간, 주거시설 완공 • 광역차원의 문화시설 계획

출처 : Mairie de Paris, 2009, Le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pour Paris 2007~2009

[참고] GPRU 대상지

- ① 13구 레 올랭피아드(Les Olympiades)
- ② 13구 베디에-포르트 디브리(Bédier - Porte d'Ivry - Boutroux)
- ③ 14구 플레장스-포르트드 방브(Plaisance - Porte de Vanves)
- ④ 17구 포트 푸셰(Porte Pouchet)
- ⑤ 18구 포트 몽마르트-포르트 클리낭쿠르와 포트 프와소니에 지역(Porte Montmartre - Porte de Clignancourt et Secteur Porte des Poissonniers)
- ⑥ 18구 파리 노르-에스트 지역(Paris Nord-Est)
- ⑦ 19구 시테 미슐레(Cité Michelet)
- ⑧ 20구 생 블래즈(Saint Blaise)
- ⑨ 20구 포트 드 몬트뢰이-라 투르 뒤 팡(Porte de Montreuil - La Tour du Pin)
- ⑩ 12구와 20구 포트 드 벤센느(Porte de Vincennes)
- ⑪ 20구 포트 데 릴라(Porte des Lilas)



〈그림 2-16〉 GPRU 대상지

출처 : Mairie de Paris, 2009, Le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pour Paris 2007~2009

- 2단계부터 프랑스 친환경 건축기준인 ‘Haute Qualité Environnementale (HQE)’의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친환경 요소 강화
 - 녹화벽과 지붕, 재생에너지 시설(태양열 집열판), 쓰레기, 생활하수 처리시설 등에서 건설기준을 특별히 강화
 - 2007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대로 진행
- GPRU 대상지 내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인 고층건물 6개 철거
 - 일부 고층주거건물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으로 프랑스건축계 이슈가 됨
- “Nature+” 사업과 같은 시민참여 마을환경 개선사업 적극 지원
 - “Nature+”는 마을 내 공공공간에 주민들이 함께 정원, 녹화벽, 화단 등을 조성하는 사업

[고층건물 리모델링 사례] Bois-le-Prêtre 타워 리모델링 사업

- Bois-le-Prêtre 타워는 GPRU 지역 중 포트 푸셰 지역의 랜드마크인 동시에 낙후된 주거 고층 건물(공공임대주택)의 상징
- 1962년 건축된 건물로, 2011년 GPRU의 일환으로 시행된 리모델링 사업은 l'Equerre d'Argent과 같이 세계적인 건축대상을 수상하여 큰 화제가 됨



〈그림 2-17〉 Bois-le-Prêtre 건물 리모델링 전 · 후

출처 : Mairie de Paris, 2012, “Tour du Bois-le-Prêtre : une rénovation inédite”

- 20구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 GPRU 대상지로 확대 예정
- 어린이 교육기관과 청소년 지도,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더욱 확대
- 공공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센터, 문화센터 등)의 확충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지원

[시민단체 활용 사례] 'Jardin du Béton'

- 'Jardin du Béton'은 GPRU 대상지 중 하나인 생 블래즈(20구) 지역의 시민단체
- 지역 내 10년 이상 건물지붕, 공지, 테라스의 식물들을 가꾸는 사업 진행
-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식물을 가꾸고 마을도 아름답게 가꾸는 동시에 시민들 사이의 친목과 사회적 융화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이러한 시민단체들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도 GPRU의 중요활동 중 하나임

출처 : Mairie de Paris, 2010, Brochure, Jardins Partages

○ 오늘날 GPRU

[최근 GPRU사업 사례] 14구 포트 드 방브 지역 현황

- 포트 드 방브 지구는 11개 GPRU 사업지 중 하나로 파리 정남부 14구에 위치
- 이웃 도시 방브와의 경계선 외곽환상도로 복개사업이 위치한 지역으로 전형적인 서민, 중산층 주거지역임. 철도, 자동차도로 복개부지 위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현대식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기숙사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
- 대표사업 Broussais 산책로, 신규 공공임대주택, 학생 기숙사, 일반주택 계획



Broussais 산책로 : 철도 부지를 복개하고 산책로 조성
(2014년 여름 완성 예정)



공공임대주택

일반주택(좌)
학생기숙사(우)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학생 기숙사, 일반주택
(2013년 착공해 2015년까지 완료 예정)

출처 : 'Le quartier plaisir/Porte de Vanves', Lettre d'Infos n,6 2012, Direction de l'Urbanisme de la Ville de Paris.

제4절 취약계층 보호 : 사회주택 쿼터제도

1. 파리의 사회주택(Logement Social)정책

1) 사회주택(Logement Social)의 정의

- 일반적인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3가지 형태로 분류¹³⁾
 - － PLAI(Prêt locatif aidé d'intégration) 주택 : 주거문제에 매우 취약한 계층을 위한 주거형태로 노숙자들의 긴급주거지 등을 포함
 - － PLUS(Prêt locatif à usage social) 주택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서민대상 공공임대주택
 - － PLS(Prêt locatif social) 주택 : 일반 주택과 서민 공공임대주택의 중간형태로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파리의 경우 3/4 정도의 가구가 이 유형에 해당
-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신축을 통한 확대공급이 일반적이지만, 기존 주거건물을 공공이 매입하여 재건축하거나 변경하여 활용하기도 함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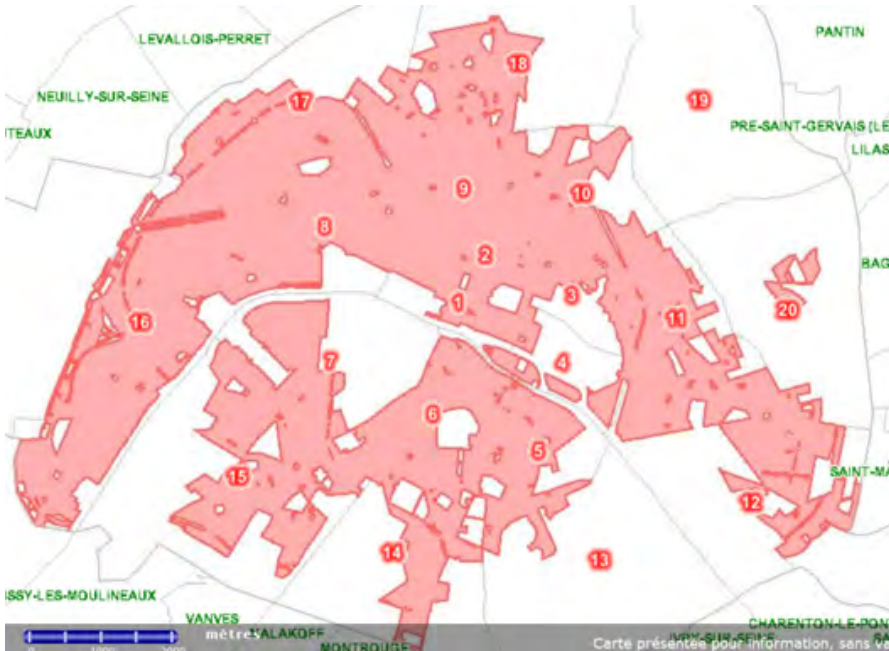
2)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회주택제도의 변화(2000년 개정)

- 2000년 12월 도시계획관련 법안 개정
 - －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la solidarité et renouvellement urbains, 이하 SRU법)’의 탄생
- 사회주택 쿼터제도 실행
 - － SRU법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의 해당 지역 내 총 주거면적의 20% (~25%)가 사회주택으로 구성되어야 함

13) 주거정책의 핵심은 PLUS 주택(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법제도적 시각에서는 아래 3가지 형태가 모두 사회주택에 해당함

14) 재건축된 기존 주거 건물은 신축사회주택으로 분류됨

- 사회 주택은 공공임대주택(PLUS) 위주로 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매해 벌금을 물어야 함
- 이 쿼터제에 의하면 파리시는 당시 45%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



출처 : “zones de déficit en logement social” 파리 시청 웹사이트 인터랙티브 지도, Mairie de Paris

〈그림 2-18〉 파리도시계획(PLU)에서 제시한 사회주택 부족지역

- 파리시는 진일보된 사회주택정책으로 2020년까지 20%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SRU법 규정보다 더 빠른 2014년까지 목표 달성 예상
- 2020년까지 20% 목표 달성을 위해 약 4만개의 새로운 사회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며, 그 중 3만개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미 2001~2007년 사이에 달성
- 쿼터제 목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2006년 개정된 도시계획(PLU)에 강력한 사회임대주택 확충프로그램이 명시됨

- 건축허가가 필요한 모든 건축 프로젝트에서 주거면적이 1,000m²를 넘을 경우 적어도 25% 이상의 사회주택이 포함돼야 함
- 또한 시내 89개 구역을 지정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그 중 17개의 사업예정지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함)

3) 서민주택정책 핵심 목표

- 제일 큰 목표는 상기 언급한 20% 사회주택쿼터를 달성하고 분배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질적인 차원의 사회주택 공급
 - － 2014년까지 파리 시내에 27,000개의 새로운 주택(총합)을 공급할 예정인데 이러한 신축공급프로그램의 50%는 사회주택에 할당
 - － 새로운 대형 도시정비 사업들(리브고슈 협의개발지구 등)에 신설된 사회주택의 친환경 기준 강화
-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사회주택을 공급 외 다양한 여건의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지원제도 마련
 - － 서민들이 일반주택을 매입하거나 일반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
 - － 임대료가 매우 비싼 일반주택에 사는 서민가구에 개별 보조금을 지급
 - － 저소득층에게는 가스, 전기세를 지원하고 서민 대상 무이자 대출 지원
 - －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적은 가구에 대한 임대보증보험을 실행
 - 임대주의 위험을 덜어주고, 서민의 임대여건을 개선
-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정책
 - － 노숙인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확충, 개선
 - － 이민자 가정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의 가구들을 위한 임시숙소 지원
 - － 불량한 일반주거건물 등을 매입하여 임시숙소로 공급
 - － 빈민층이 집중되는 장기숙박호텔의 환경개선 지시
 - －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가구가 거리로 추방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개별적 지원책 마련

2.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1) 사회주택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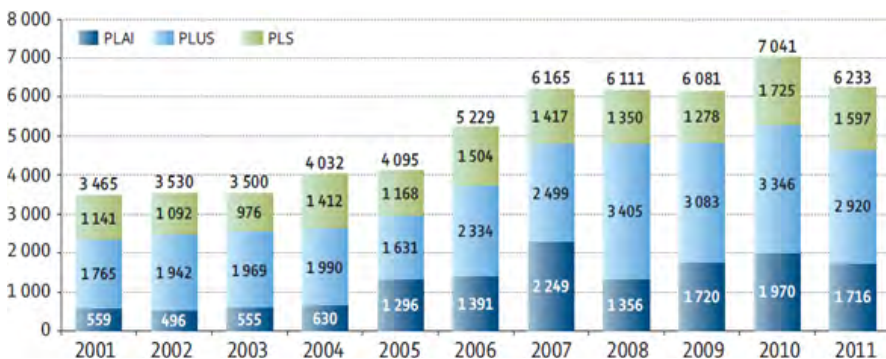
○ 파리 시내 공공임대주택(2011년 1월 집계)



주석 : 가로축-공급된 주택의 수, 세로축-연도

출처 : "zones de déficit en logement social" 파리 시청 웹사이트 인터랙티브 지도, Mairie de Paris

〈그림 2-19〉 2001~2011년 사회주택 공급량



출처 : "zones de déficit en logement social" 파리 시청 웹사이트 인터랙티브 지도, Mairie de Paris

〈그림 2-20〉 2001~2011년 사회주택 종류에 따른 공급량

- 파리 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총수는 197,414개이며 그 비율은 시내 총 주택(별장 등의 특수형태 주거지 제외)의 17.1%에 이릅니다
- 그 외 중산층 지원주택들을 합하면 250,000개의 주택이 사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반면 주택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
 - 임대주택의 순환비율은 매우 저조하여 5.4%밖에 되지 않음
 - 그에 비해 임대주택 신청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
 - 2011년 한 해에 96,086가구가 임대주택입주를 새로이 신청하거나 임대계약을 연장하고자 함(2010년 대비 +3.6 %)

2) 주택공급사업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500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4개년 목표 달성
 - 10개 이상의 주거건물을 강제 수용하여 사회주택으로 개조
 - 이중 일부는 파리 도심에 위치하여 도심지역 사회적 혼합 목표에 기여
 - 민간의 낙후된 건물도 강제 수용하여 쾌적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할 계획(새로운 사회주택 200여 가구 창출 효과) 수립
- 2002년부터 SIEMP(파리개발공사)의 주도 아래 사회주택의 수요, 공급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내 빈 주택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주택소유주들과 계약
 - 빈 주택들의 소유주를 파악하고 교섭하기 위한 정보센터 신설
 - SIEMP는 2004년 6월30일 185명의 소유주와 계약해 임대사업 시작
 - 낙후된 일반주택들 중 1만7천 개 주택을 재정지원으로 정비하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
 - 2005년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던 시내의 빈 주택 205개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2005~2010년 1,650개의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숙소를 정비 및 신설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1천4백만 유로 투입
- 2006년까지 268개의 임시숙소를 확충하고(총 460개 목표), 321개의 숙소 보수공사 완료(총 1604개 목표)
- 2005년부터 파리동부개발공사를 통해 347개의 노후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거나 재건축하여 사회주택으로 전환
-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 제공
 - 2007년 민간주택 소유주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시장에 내놓을 경우 파리시에서 월세지급보장 등의 혜택 제공
 - 2008년 124개 주택이 이 제도에 의해 임대됨
 - 2009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6,000개 이상 공급
 - 중산층 가정용 사회주택, 학생이나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임시 숙소, 공립 실버타운 등
 - 이들 주택은 파리의 동-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며 환경기준을 충족
 -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 리모델링 기회를 적극 활용
 - 시내 1/3의 사회주택은 중산층 시민들에게 분배(PLS 주택)
 - 지나치게 소형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큰 면적의 주택도 일정비율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 청년근로자 기숙사 계속 확대(2001~2007년 1,527실 신설, 2008~2010년 1,639실 신설)
- 들라노에 시장의 주택공급사업의 의의
 - 2001년 이후 재정지원으로 공급된 55,482개의 사회주택 중 65%의 주택은 가족용 주택(방 2개 이상)
 - 가족용 주택활성화 정책으로 1999년 이후 파리를 떠났던 3인 이상 15,080세대가 파리로 돌아옴
 - 2001~2012년 15~29세의 53만 명의 청소년을 위해 10,125개 이상의 청

년 근로자 기숙사 객실 창출

- 40%의 사회주택은 장애인 친화적으로 설계됨.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77개의 공동숙소도 운영 중(그 중 59개 숙소는 야간보호인도 배치)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된 55,482개의 사회주택 중 33,064개의 주택은 2011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어 공급

3)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재정 지원

- 2004년부터 임대주택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개선
- 2004년부터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활성화하고자 무이자서민대출제도 실시
 - 예를 들면, 월수입 2,558유로 이하의 파리 시민(독신)은 2만2천 유로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 제도 시행 5년 내 9,000가구 이상이 내 집 마련에 성공
- 저소득층 주거지원
 - 2001~2004년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주택 1,230개, 2005년에 961개 공급
 - 저소득층이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 개선
 - 서민주택지원기금을 활성화
 - 2004년에만 8,700가구 지원
 - 2006년 파리주거상황 연구기관 신설
 - 공공주택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
 - 2008년 말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파리 시내 주택(일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리 0% 대출제도 신설
 - 2009년부터 일반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서민가정들에게도 주택마련대출(무이자) 제도 실행
 - 2자녀 서민가정의 경우 7만 유로까지 대출 가능

- PASS-GRL(Garantie des risques locatifs) 제도 시행
 - － 2008년부터 소득이 적은 서민, 청년들이 손쉽게 파리에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보험 제도(“위험 없는 임대보험”)
 - － 임차인, 보험회사와 임대주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미지불이나 주택 훼손 등의 위험을 보장
 - 소유주는 안전한 임대업을 보장받는 대신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 책정
 - － 장기숙박호텔을 전전하는 1200세대가 이 제도 덕분에 주택임대에 성공 (2012년 기준)
 - 특히 장기숙박호텔을 전전하는 싱글맘들을 집중적으로 지원
- 기타 제도
 - － 2004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가스, 전기세도 지원
 - － 2009년 시작된 사회적 성격의 부동산중개업소 사업에도 지원
 - － 파리의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세대 중 소득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매우 큰 가구를 위해 소액의 주거보조금 지원(80~110유로)
- 추진 결과
 - － 2001~2012년 사이 총 55,500개의 사회주택에 재정지원
 - － 2001년부터 1,400개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전용주택에 재정지원

제5절 함께 만드는 도시 : 파리 도시행정체계

1. 참여 민주주의의 꽃,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

1) 지구평의회의 기능 및 역할

(1) 지구평의회란?

- 지구평의회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기관
 - － 2002년 2월 7일 제정된 “근린 민주주의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Démocratie de Proximité)에 의해 창설

- 인구 8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지구평의회를 설치
 - 인구 2만~8만의 도시들은 지구평의회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데, 부시장이 주관
 - 평의회 활동방식, 역할, 의원구성 등은 각 도시의 시의회가 결정
- 지구평의회의 구성
 - 일반적으로 시의원, 각종 이익단체의 대표, 시민단체(Association), 주민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
 - 시의회가 임명할 수도 있고 자원인들 사이에서 선출될 수도 있음

(2) 지구평의회의 역할

- 지역민을 위한 정보와 토론의 장
 - 해당 지구(Quartier)뿐 아니라 전체 기초자치단체(Commune)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시정에 도움을 줄 자문기관으로 활약
 - 지구와 관련된 사업의 계획, 실행 및 평가에 대한 의견 서술
- 현재 지구평의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체는 지역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혹은 시민협의회, Association)
 - 예를 들어 도시계획수립 혹은 개정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시장에게 계획 수정을 요구
 - 시장은 이러한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정기적인 지구평의회 회의운영
 - 정기 회의에서 시공무원, 시민들이 토의, 질문, 응답의 시간을 갖게 되며 분야별(교통, 주택, 상하수도 등)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함
- 지구평의회는 시장국과의 사이에서 지역에 관한 것을 협의하는 장이므로, 스스로 어떤 법률을 제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음
 - 지구평의회의 위상이 시정의 자문 수준에 그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표출되기도 함

- 지구평의회가 시장과 현장공무원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협의의 장(場)이 되기를 기대함

(3) 지구평의회 활동 지원

○ 구청

- 활동장소(공공저가임대주택의 사무소 등) 무상으로 대여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
- 지역별로 의견수렴 전담인원 1명을 지원
- 평의원을 위한 교육과 다른 도시 방문을 지원하는 예산 및 물자 지원 (컴퓨터, 복사기 등)도 가능

- 시(Commune) : 시 예산에서 지구평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지만, 법률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파리의 지구평의회

(1) 개요

- 2002년 7월 “근린 민주주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1개 지구평의회 설치
 - 파리 각 구(Arrondissement)의 구청장들은 지역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 지구평의회 의원수를 지정
 - 일반적으로 인구 비례가 보편적인 기준¹⁵⁾
 - 지구평의회 활동, 조직구성은 각 구청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예산

- 지구평의회 고유의 예산은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선출기관은 아님
 - 현재 파리 시청의 공식적인 1년 예산지원액은 지정되어 있음

15)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1, 4, 5, 7구는 4개의 평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인구가 많은 15구에는 10개의 평의회가 활동 중

- 지구평의회별로 경상비 3,305유로와 투자비 8,264유로 책정
- 경상비 용도
 - 지구평의회와 기본 기능과 지역 내 홍보와 정보교류활동에 사용
 - 구체적으로, 의회 구성원들에 대한 우편-통신, 사무용품, 홍보물인쇄,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품(음향기기 등), 식음료 등에 사용
- 투자비 용도
 -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
 - 지역도로환경(가로등, 벤치, 도로표시 등) 개선, 지역 내 버려진 녹지나 공지 개선 등 장기적인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이용
 - 2011년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구평의회 예산 사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 토론과 설문결과, 지구평의회와 전반적인 활동방향에는 동의
 - 하지만 예산사용에 대한 안내부족, 행정절차의 복잡함, 아이디어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이 약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 피력됨

(3) 활동 현황

- 회의 빈도 및 참여도
 - 평균적으로 연 400회 이상의 지구평의회 회의가 각 지역에서 열리며 이를 통해 도합 4,500명 정도의 평의회 의원들이 활동 중
 - 매해 25,000명 정도의 주민이 지구평의회 회의에 참여
- 주요 활동성과
 -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평의회를 통한 의견들이 1만 개 이상 접수
 - ‘파리 도시기본계획(Plan Local d'Urbanisme)’ 개정이나 ‘교통계획(Plan des Déplacements de Paris)’ 수립, ‘파리 시민참여 헌장(Charter Parisienne de la Participation)’ 제정 등

- 매해 열리는 ‘참여민주주의 봄(Printemps de la Démocratie Locale)’ 대회를 이끄는 핵심주체로 활동
 - 2012년부터 이 대회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만남(Rencontres de la vie Associative et Citoyenne)’이라는 또 다른 유사한 행사와 통합되어 ‘파리 시민(Paris Citoyen)’이라는 행사로 재탄생
- 2009년 말 파리의 시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0개의 원칙 아래 50여 개의 실천방법이 수록된 ‘파리 시민참여 헌장(Charte parisienne de la participation)’ 제정
 - 이를 위해 지구평의회를 중심으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4,300명 이상이 토론에 참여

[파리시의 평의회 구성 사례] 파리 벨빌(Belleville, 20구)지구

- 서민적이며 이민자들이 많은 파리 벨빌지구의 지구평의회 활동은 매우 활발한 편
- 지구평의회 의원구성 : 현재 총 39명의 의원들이 선출되며 임기는 3년

〈표 2-2〉 파리 지구평의회 구성원 선출방식 : 파리 벨빌지구 사례

구분	종 류	주요 특징
1	일반 주민대표	• 16명을 20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중 무작위 추천 • 16명을 더 추천하여 예비인력으로 대기
2	외국인 대표	• 유럽연합 외 외국인 주민 중 자원자 2명을 추천
3	청소년 대표	• 16~25세의 청소년 자원자 중 2명 추천
2	구청 추천대표	• 지역 문화, 시민활동, 경제분야의 대표로 인정되는 사람들 중 주민들의 협의를 고려하여 구청이 11명을 추천
3	구의회 대표	• 구의회가 지정한 8명(정치적 대표)

- 지구평의회 의원 구성방식은 구(arrondissement)마다 상당히 다르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역을 가장 골고루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을 선출하려고 노력
- ‘구’별로 지역마다 임기(2~4년), 회의 횟수, 의회의장 선출방식이 조금 다름

출처 : Conseil de Quartier Belleville Paris 20e(파리 20구 벨빌 지구평의회 웹사이트),
<http://belleville20.wordpress.com/>

2. 수도권 광역 협력의 미래, 파리 메트로폴(Paris Métropole)

1) 파리 메트로폴(Paris Métropole)의 탄생 배경

(1) 행정적, 물리적인 이유로 광역협력 활성화 지체

- 지방자치체가 시작된 1982년 이전부터 이미 수도권은 급속히 성장하여 많은 시민의 일일 생활권이 광역차원으로 팽창된 상태
- 반면 도시행정적 차원에서나 물리적인 도시형태적 차원에서나, 파리와 인접 도시들 사이의 협력체제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¹⁶⁾
 - － 일반 도시들은 ‘도시연합체(Intercommunalité)’, ‘도(Département)’ 단위에서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 파리는 유일하게 ‘도’의 지위를 함께 갖춘 도시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름
 - － 반면 초광역 수도권인 일드 프랑스주는 범위가 너무 넓어 일드 프랑스 주계획(SDRIF)에 의한 포괄적인 조정만 가능
- 결국 개별 사업차원에서의 협력만 가능하였음
 - － 주로 교통분야나 하천, 숲 등 규모가 큰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협력이 주로 진행됨

(2) 들라노에 시장의 광역거버넌스에 대한 강력한 의지

- 2001년 취임 이후 인근 지역자치단체와 새로운 협력 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광역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다양한 형태로 이웃 지방자치단체와의 새로운 협력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
 - － 100개 이상의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MOU, 협력의정서 등을 체결
 - － 일드 프랑스주(州) 정비계획(20년 장기계획) 개정에도 적극 참여

16) 파리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외곽환상도로 때문에 도시의 경계선이 물리적으로도 매우 선명하여 다른 인접도시들과 분리되어 있음

- 파리고통계획(Plan de déplacement de Paris) 수립 시 이웃 도시들과의 소통 활성화
- 이들은 수도권 발전을 위해 정치적 대화를 나눌 하나의 장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을 인정
- 2009년 수도권 광역조합 “파리 메트로폴(PARIS MÉTROPOLE)” 탄생
 - 들라노에 시장은 ‘수도권 광역협의회 (Conférence métropolitaine)’를 광역조합의 형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
 - 결국 2009년 4월 매우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다양한 분야의 광역협력을 위한 연구와 토론기구인 파리 메트로폴 조합 탄생

2) 파리 메트로폴(Paris Métropole)의 활동 사항

(1) 활동목적

- ‘파리 메트로폴’은 수도권 내 모든 규모의 지역자치단체가 교통, 주민생활 여건, 경제발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을 함께 이루기 위한 협의체

(2) 참여기관

- 탄생 당시에는 87개 지역단체가 참여하였고, 현재 규모가 확대되어 2012년 기준으로 수도권 200개의 지역단체들(148개의 시, 45개의 도시연합체, 8개의 도, 일드 프랑스주)이 참여하고 있음

(3) 활동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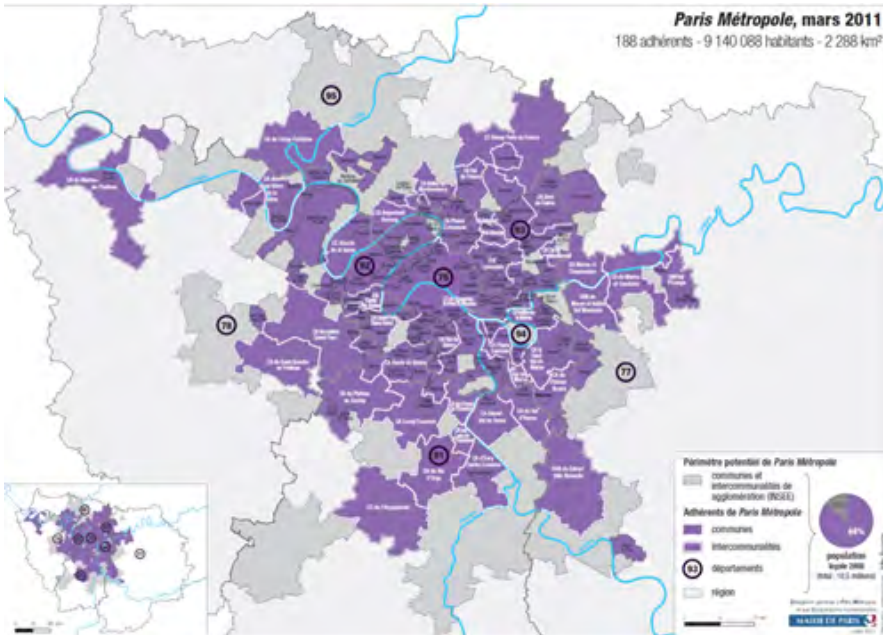
- 개방성
 - 파리 메트로폴은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초월하여 모든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음
 - 단순히 법에 의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시, 도, 주)뿐 아니라 기존의 활

동하고 있는 도시연합체, 광역협의체, 학계인사, 경제인 등 지역발전의 모든 파트너가 연구와 토론에 참여 가능

- 단 지역대표(지방자치단체, 도시연합체 등)들만이 정식으로 위원회에 소속되며 그 외 경제, 학계 대표들은 파트너로 참여

○ 평등성

- 협의과정에서는 인구나 경제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평한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균형과 평등이 파리 메트로폴 운영의 핵심 원리
- 조합의 의장직도 이러한 평등원리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단체 대표가 일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고 있음



주석 : 인구 9,140,088명, 면적 2,288km²를 포함하는 188개 단체, 보라색으로 표시

출처 : Mairie de Paris, "Le syndicat Paris Métropole"

〈그림 2-21〉 파리 메트로폴 조합원(2011년 3월 현황)

- 반면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해 조합예산은 각 지역단체의 규모와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담
 - 파리시는 전체 예산의 20%를 부담하고 있음

(4) 주요 활동범위

- 현재 파리 메트로폴은 4개의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2개 테마를 연구하는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4대 분야별 위원회
 - ① 광역권 프로젝트 위원회 : 다양한 광역협력 프로젝트들을 알리고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사업을 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발전과 연대감 위원회 : 지역 간 세수입의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을 연구
 - ③ 주거위원회 : 수도권 내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 지원
 - 특히 파리시는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플랜 코뮌 연합체와 공동으로 ‘SOREQA’ 지방공사¹⁷⁾ 설립
 - ④ 교통위원회 : 수도권 교통망 개선을 위한 연구와 토론
- 2대 연구팀
 - ‘광역차원의 공항운영의 역동성 개선방안’, ‘라 데팡스 지구의 수도권 통합’이라는 연구주제로 운영 중

(5) 주요 성과

- 2010년 말 파리 메트로폴 활동 첫 해의 성과 진단
 - 파리 메트로폴은 광역 거버넌스 기구가 제도적으로 단순히 추가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광역결정을 이를 통합의 장으로 호평

17) ‘SOREQA(Société de Requalification des Quartiers Anciens pour traiter l’habitat insalubre, 낙 후지역의 불량주거개선회사)’

- 또한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들도 현실화됨
 - 예를 들어 2009~2010년 사이만 해도 “110개의 실행목표”가 선언되었 으며 아래와 같은 사업들이 토론, 제안됨
 - ① 클리시 수브와(Clichy-sous-Bois) : 불량주거지 퇴치를 위한 협력
 - ② 아쉐르(Achères) : 세느강에 새로운 항구건설을 위해 협력
 - ③ 벨리브, 오토리브 제도의 광역확산을 위한 협력
 - ④ 노선전차(트램) T3 연장을 위한 협력(아니에르시 등과 협력)/ T2 연장 을 위한 협력(이시레 물리노시와의 협력)
- 2009년부터 노르망디 지방의 루앙(Rouen), 아브르(Havres)시와 함께 ‘세느강변축(Axe Seine) 정비’ 계획
 - 항구시스템 현대화, 고속열차시스템 개선, 환경-경관발전 등
 - 2010년 파리, 루앙, 아브르시의 시장들이 공동 협력을 결의

3) 파리 메트로폴과 그랑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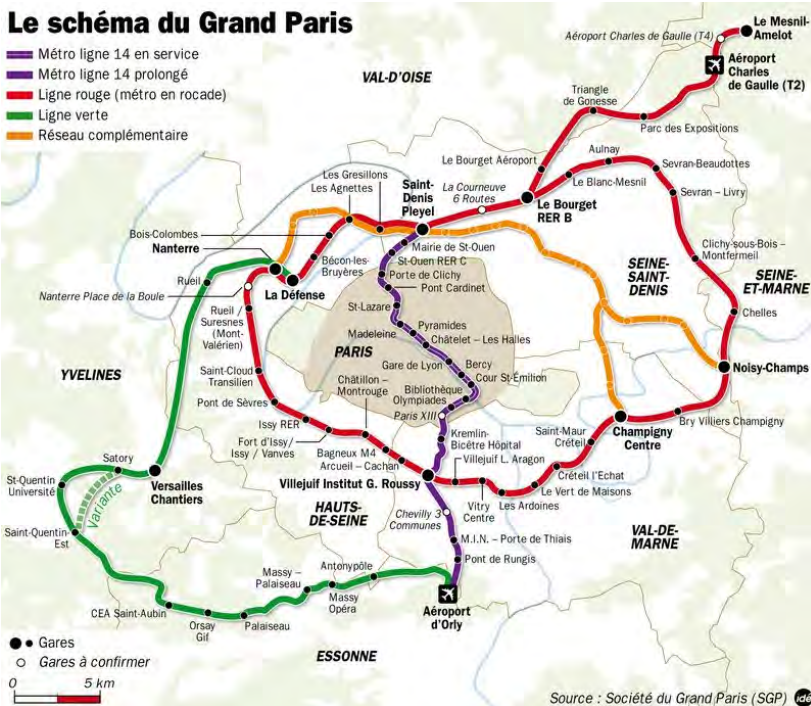
(1) 그랑파리 국제공모전과 교통계획

- 그랑파리 사업은 프랑스에서 가장 잘 알려진 광역사업이지만 사실 지방자 치단체사업이 아닌 ‘중앙정부’ 소속 사업으로 시작¹⁸⁾
- 프랑스 정부는 ‘르 그랑파리(Le Grand Paris)’ 계획을 수립해 국제공모전을 실시하고 총 38개의 국내외 응모팀 중 최종 10개 팀 선정¹⁹⁾(2008년 5월)
 - 건축·도시계획·사회학·경제학·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0개 팀은 21세기 파리의 비전을 ‘녹색과 인간’으로 제시
 - 대대적으로 파리를 변화시킬 전략 제시

18)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은 21세기를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인 파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토의정서에 부합하는 세계도시모델로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광역개발 프로젝트를 제안

19) 중앙정부, 파리지, 일드프랑스, 각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아래 주최

- 단핵구조에서 다핵으로, 무분별한 교외확산(Urban sprawl)에서 친환경 콤팩트 도시로의 전환전략 등이 모색됨
- 프랑스 정부는 건축가 팀들의 제안 내용과 수도권 개발 차관의 전략비전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그랑 파리 프로젝트 최종안 발표(2009년 4월 29일)
 - 2010년 6월3일 그랑파리 관련법안을 제정하고 2010년 7월7일 사업의 주체가 될 그랑파리 공사 설립
- 이 과정에서 그랑파리 국제공모전 제안들이 홍보용으로만 사용되고 최종계획안은 교통망계획으로 축약된 점에 대한 비판이 임
 - 최종계획의 핵심프로젝트는 총 155km에 이르는 자동 무인지하철 노선(그랑파리 대중교통망 프로젝트) 구축계획



출처 : Société du Grand Paris(SGP)

〈그림 2-22〉 그랑파리 교통망 노선도 : Grand Paris Express

- 2010년 9월 국립공개토론위원회(CNDP) 주관 아래, 프로젝트의 마지막 승인단계인 대국민 공개토론이 진행된 이후 공식적으로 실현

(2) 그랑파리 국제워크숍(Atelier International du Grand Paris)의 탄생

○ 그랑파리와 파리 메트로폴과의 갈등

- 사르코지 대통령의 그랑파리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정사업
 - 이미 결성된 파리 메트로폴이나 일드 프랑스 주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님
- 그랑파리 교통망 사업과 유사한 Arc Express(근교를 순환하는 무인자동전철)란 철도사업이 일드프랑스, 파리 메트로폴의 협력을 통해 진행(연구 단계)되던 상황에서 그랑파리 사업이 제안됨
- 광역거버넌스 차원의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작된 그랑파리 국제공모전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발생
- 특히 파리시와 일드 프랑스 주정부는 정치적 성향이 중앙정부와 달라 갈등이 더욱 심하게 표출됨
 - 일드프랑스 주정부의 주력사업인 Arc Express 근교 순환철도와 그랑파리가 통합(2011년)되면서 광역행정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주도 아래 귀속되었다는 정치적 비판이 크게 일어남
- 현재는 프로젝트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광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담론이 전환되고 있음
 -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지만 지방정부들은 대체로 대국민 공개토론에 의해 국민들이 승인한 그랑파리 사업을 받아들이고 있음

○ 그랑파리 국제 워크숍(AIGP : Atelier International du Grand Paris)

- 위와 같은 갈등 속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해당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위해 조직 구상(2010년 2월)
- 중앙정부, 일드 프랑스 주정부, 파리 메트로폴, 일드 프랑스 시장연합회 등이 참여

- 현재 진행 중인 교통망 사업 외에도 ‘그랑파리’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 있는 협상의 장으로 부상
 - 특히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랑파리 국제공모전의 제안들을 다시 연구하여 수도권의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 프로젝트로 재탄생시키고자 노력 중
- 연구와 토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대표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도시전문가 15명을 자문위원으로 초빙
 - 대디수는 그랑파리 국제공모전에 참여한 인물로 이브 리옹, 카스트로 드니소프, 크리스티앙 드빌러, 리처드 로저스 등이 대표적임
- 현재 AGIP은 초광역 차원의 수도권 전역에서 구상, 진행 중인 광역정비사업 650개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와 연구의 장으로서 역할

제3장 들라노에 시장의 정책적 시사점



제 3 장

들라노에 시장의 정책적 시사점

1.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 인간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 － 파리 도심을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이를 도심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역할과 의미 재조명
 - － 도시계획 및 정책이 기존의 도로 및 차량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함
 - － 차량 위주로 돌아가던 도시를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킴
 - － 파리는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확대, 가로수 및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공간을 우선 배려하고 난 후 차량을 고려함
- 서울 도심공간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 － 서울 도시는 파리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차량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 － 도심 공간의 변화와 녹지 공간 증대 정책으로 청계천이나 도심 속 공원 등을 조성하고, 보행공간을 개선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업은 차량 위주로 수행되고 있음

- 서울 도심 공간 정책의 변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변화 시도가 필요
 - －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차량 진입을 감소하고 보행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여, 공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다양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못하고 있음
 - － 차량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함

2. 느림의 미학에서의 배움

- 시민들이 파리시 정책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
 - － 파리의 주요 사업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협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파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 및 지역 정비사업 등은 대부분 시민들과의 참여 및 논의과정을 통해 그 의견이 반영되고 있음
- 오랜 시간에 걸친 시민들 참여의 협의 과정에 의한 합의인 만큼 시민들은 초기 의견에 관계없이 최종 결과에 긍정적이고 빠르게 수긍함
 - －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야 협의가 가능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 그러나 이렇게 결정된 정책에 대한 호응도와 추진력은 매우 높음

[사례] 대형국책사업에서 의사결정과정

-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설문조사 혹은 토론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
-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도 시민협의회, 전문가 등을 활용한 토론회, 자문회의, 연구 조사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획 입안

〈표 3-1〉 파리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간사업의 의사결정과정

주요 사업	의사결정 및 협의 과정
파리도시계획 개정 (Plan Local d'Urbanism)	• 지구평의회를 이용하여 약 9개월(2004.5) 동안 대규모 파리 시민 설문조사 실시 및 종합 분석(약 9개월) • 이 조사로 약 14만개의 의견 수렴(파리 인구 217만 명)
시민을 위한 공간사업 (Espaces civilises)	• 사업기간 약 4년 중 실제 공사기간은 2년 남짓에 불과 • 이 중 약 10개월은 지역 시민 토론회를 통해 기본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진행의사 결정 및 사업지역 결정(2001.4~2002.2) • 사업실행 방안을 결정할 때도 약 21개월간 토론회 진행(2002.3~2003.12)
연구자 재구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의견 교환

-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은 정부기관 및 각 지자체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도 나타나며 협의과정도 개방적임
- 특히 파리도시계획 개정 과정이나 지구평의회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시정 운영 참여 등에서 시민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또한, 파리 메트로폴 구성에서도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수도권 지역의 실질적 실행력을 위한 예산의 배분도 지역의 형평성에 맞도록 하여 실행력을 배가시키고 있음

○ 서울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 및 기회의 확대

- 서울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는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함. 대다수의 시민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관한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음
- 서울 시민이 서울시의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에 관한 피드백을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 정책 및 계획 수립의 신중한 판단 및 의사결정에 대한 기다림의 필요
 - －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시민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나 정책은 빠른 정책수행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례] 광역조합 ‘파리 메트로폴’의 참여대상 및 권한

- 파리 메트로폴은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초월하여 수도권 내 모든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시, 도, 주)가 참여 가능
- 법에 의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외에 기존의 활동하고 있는 도시연합체, 광역협의회, 학계인사, 경제인 등 지역발전의 모든 파트너들도 참여할 수 있음
- 단 지역대표(지방자치단체, 도시연합체 등)들만이 정식으로 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 경제, 학계 대표들은 파트너로 연구와 토론에 참여 가능
- 위원회에 소속된 지역대표는 인구나 경제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평한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조합의 의장식도 수행 가능(순환식)

3. 다함께 잘 살아 보세!

- 평등과 분배의 형평성에 준거한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정 운영
 - － 모든 시민이 계층과 관계없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파리는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에서 다양한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다양하게 구성
 - － 사회주택쿼터를 통해 파리 전역에 임대주택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함
 - － 서민을 위한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마련, 취약계층 보호정책 운용
- 수도권광역사업 추진 방향은 지역성장 및 글로벌 환경의 변화 트렌드로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 － 지구평의회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선출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수도권 사업을 추진할 때도 자치구 중에서 가장

- 많은 예산(전체 예산의 20%)을 할양하여 형평성 논리를 실현하고 있음
- 사회적 복지 혜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고른 배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함
 - －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서울시와 파리시는 상이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파리의 정책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맞는 형평성 있는 분배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 복지 분야는 시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수혜자들의 범위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서울시의 복지정책 추진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
 - － 시나 정부의 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인력 투입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 시나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관리·운영과 함께 시민단체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복지정책 추진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
 - 수도권 및 지역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실행 및 협력 방안 모색
 - － 현행 서울 및 경기/인천은 물론 서울시 25개 자치구들 간의 협력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 지역 간 연계 부족은 이중적인 예산 집행과 중복된 정책 실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관련 부서 및 실행 주체 간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실행력은 관련 조직들의 예산 집행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는 논리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4. 옛것이 좋은 것이여!

- 파리의 개발정책은 과거의 것들을 밀어내고 새것을 추진하기보다 ‘옛것을 우선적으로 지키자’라는 관점의 접근에 방점
 - － 파리의 주택정책, 도심 공간 활용정책, 문화재 관련정책,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 등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기존에 우위를 점하고 있던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중요시함
 - － 도시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도시가 성장하는 가운데 파리가 구축해 놓은 많은 유산과 문화는 그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
- 기존의 것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 － 파리는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에서 도로의 폭을 무조건적으로 일괄적으로 확장하지 않고 자투리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수정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음
 - － 이는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는 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큼. 또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파리 도심 공간의 활용 사례
 - － 세느강 주변의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
 - － 파리 도심부의 기존상권을 파리의 문화적 자산으로 여기고 우선적인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문화보호 및 지역 활성화 모두 성공
 - － 도심개발은 신규개발보다 기존의 건축물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출처 : Mairie de Paris, 2012, Berges avant apres 2012(<http://labs.paris.fr>)

〈그림 3-1〉 세느강 주변 도로 자투리 공간 활용



출처 : Paris.com(<http://www.paris.com/>), The Champs-Élysées in Paris,

〈그림 3-2〉 샹젤리제 거리(Avenue des Champs Élysées)

- 서울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가치의 재발견을 통한 서울 문화의 보존
 - － 서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하고 가치 있는 문화를 축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치는 저평가되고 있음

- 새로운 개발 분위기에 힘입어 과거의 유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회의 목소리와 일부 서울의 가치 재발견이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이 더 구체화되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
-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주도의 역사가치 재발견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문화의 재발견이나 역사의 가치가 생존력이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출처 : <http://ecologicalurbanliving.blogspot.kr/2010/08/railways.html>

〈그림 3-3〉 Viaduc des Arts(12구) : 도심의 오래된 철교를 개조한 아틀리에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APUR, 2004, “Special PLU, Note de 4 pages : Assurer la diversité du commerce”.
- 1ère section territoriale de voirie de la Ville de Paris, 2006, “Le Quartier Vert ARSENAL”,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 APUR, 2010, Évaluation du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de Paris 2007-2010, Rapport de synthèse,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 APUR, 2012, “Les chiffres du logement social à Paris : début 2012”,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 Direction de la voirie et des déplacements de la Ville de Paris, 2010, “Exposition Place de Clichy : Demain”,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 Direction de la voirie et des déplacements de la Ville de Paris, 2012, “Aménagement d’un mail piétonnier rue Maurice Noguès(14e arr.) GPRU - Porte de Vanves”, Lettre d’Infos Juin 2009,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 Le Journal du Dimanche, 2011.3.17, “Paris : Le bilan de dix ans de Delanoë”
- Le Point, 2011.03.05, “Une majorité de Parisiens satisfaits de Delanoë, sauf pour le logement et la propreté”
- Mairie de Paris, “Compte-rendu de mandat”, <http://www.paris.fr/crm>
- Mairie de Paris, “Le syndicat Paris Métropole”, <http://www.societedugrandparis.fr/> (그랑파리 교통공사 웹사이트)
- Mairie de Paris, “Opération Vital'Quartier”,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 Mairie de Paris, “Paris à la carte : cartes thématiques - zones de déficit en logement social”,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 Mairie de Paris, “Paris métropole, c’est quoi au juste?”, <http://www.societedugrandparis.fr/> (그랑파리 교통공사 웹사이트)

Mairie de Paris, “Compte-rendu de mandat”, <http://www.paris.fr/crm>

Mairie de Paris, “Fonctionnement des marches”,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Mairie de Paris, “Réaménagement du quai de la Seine, du pont et de la rue du Crimée”,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Mairie de Paris, “Rue de Rennes : un espace public embelli et mieux partagé”,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Mairie de Paris, “Tour du Bois-le-Prêtre : une rénovation inédite”,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Mairie de Paris, 2005, “Qu’est-ce qu’un espace civilisé?”, COMMUNIQUÉS DE PRESSE,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Mairie de Paris, 2009, Le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pour Paris 2007~2009,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Mairie de Paris, 2011, “Exposition Place de Clichy : Demain”,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Mairie de Paris, 2012, “Les Berges”,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Mairie de Paris, Direction de l’Urbanisme de la Ville de Paris, 2010, “Révision simplifiée du PLU approuvée : Site de la Samaritaine”,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Mairie de Paris, Direction de l’Urbanisme de la Ville de Paris, 2012, “Le quartier plaisance/Porte de Vanves”, Lettre d’Infos n.6 Juin 2012, <http://www.paris.fr/> (파리시청 웹사이트)

Atelier International du Grand Paris(그랑파리 워크숍 웹사이트)

<http://www.ateliergrandparis.fr/index.php>

Bertrand Delanoet(들라노에 시장 개인홈페이지) <http://bertranddelanoet.net>

Grand Paris Express(그랑파리 교통공사 웹사이트) <http://www.societedugrandparis.fr/>

Mairie de Paris(파리시청 웹사이트) <http://www.paris.fr>

Paris Metropole(파리 메트로폴 광역조합 웹사이트) <http://www.parismetropole.fr/>

서울연 2013-OR-01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 연구 : 파리

발 행 인 이 창 현

발 행 일 2013년 4월 15일

발 행 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비매품 ISBN 978-89-8052-974-2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